2006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영국종교개혁에 나타난 비국교도 연구

- 교회론을 중심으로 -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 전공

김 종 욱

2006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영국종교개혁에 나타난 비국교도 연구

- 교회론을 중심으로 -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 전공

김 종 욱

영국종교개혁에 나타난 비국교도 연구

- 교회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건 택

이 논문을 역사신학 석사학위(Th.M)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17일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 전공

김 종 욱

감사의 글

아무 생각 없이 학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총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불만 속에 불평을 하면서도 어쩌다 보니 오랜 기간을 사당동과 양지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부족하나마 Th. M 과정을 마무리하는 글을 작성하며 이제야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먼저 언제나 쉬운 길로만 가려하는 제게 학문의 쌓이는 힘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신 박건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대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신 길은 점점더 학문에 매진하는 학자의 길이었습니다.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던 그간의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삼 목사님, 양동원 목사님, 김경진 목사님, 신세원 목사님, 정태식 목사님, 정병철 목사님이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10년에 이르도록 부교역자로 품어주신 이종복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주신 아버지, 그리고 신앙의 힘을 알게 하시고 영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어머니, 멀리 미국에서도 응원하며 자료를 제공해준 동생, 학업과 교회 사역에 짐인 듯 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두 아들, 마지막까지 동반자로 같이 해준 아내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론 및 구성 ····· 2

Ⅱ. 비국교도의 배경과 기원 ····· 5
1. 영국 국교회의 종교개혁 ····· 5
1. 1. 헨리 8세 (Henry Ⅷ) ····· 6
1. 2. 에드워드 6세 (Edwards Ⅵ) ····· 12
1. 3. 메리 (Queen Mary) ····· 16
1. 4. 엘리자베스 1세 (Queen Elizabeth Ⅰ) ····· 17
2. 비국교도의 기원 ····· 20
2. 1. 급진적 기원 ····· 21
2. 1. 1. 롤라드주의 ····· 21
2. 1. 2. 재세례파 ····· 23
2. 2. 칼뱅주의 기원 ····· 26
3. 분리파 교회를 시작한 로버트 브라운 (Robert Browne) 30

Ⅲ. 진보적 비국교도 ····· 37
1. 죽음으로 증명한 헨리 베로우, 존 그린우드 (Henry Barrow, John Greenwood) ····· 37
2. 망명목회를 통해 비국교도를 발전시킨 프란시스 존슨 (Francis Johnson) ····· 40
3. 재세례로 향한 극단주의자, 존 스미스 (John Smyth) ··· 44

Ⅳ. 중도 비국교도 …… 51
1. 독립파교회를 시작한 헨리 제이콥 (Henry Jacob) …… 51
2. 필그림 파더의 목회자 존 로빈슨 (John Robinson) …… 57

Ⅴ. 비국교도의 신학 - 교회론을 중심으로 …… 62
1. 영국 국교회의 체계 …… 62
2. 각 비국교도인들의 교회론 …… 63
3. 비국교도 교회론의 특징 …… 68

Ⅵ. 결론 …… 70

영국종교개혁에 나타난 비국교도 연구

- 교회론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종교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개혁'이다.[1] 이 교회개혁은 기독 교회의 본래적인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한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에서 떠나 사도적 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여러 가지 카톨릭적 제도와 공적사상 등 비복음적인 것들을 타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개혁이었다. 이것은 중세기를 거치며 많은 선각자들이 준비해 왔고 먼저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은 거세게 몰아쳤다. 마틴 루터는 중세교회의 성례전 체계를 공격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Justification by Faith)는 혁신적인 신학 사상을 내세웠다. 스위스의 쯔빙글리는 성경만이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며 성만찬은 하나의 기념예식에 불과하다며 카톨릭의 화체설에 도전하고 나섰다. 한편 강력한 개혁주의자 칼뱅은 만인제사장주의와 만인구원론을 말하며 인간의 구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달려있다고 하여 로마 카톨릭의 성사 중심의 미사의식과 말씀이 없는 형식주의를 비난했다.

이제 영국도 종교개혁의 물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영국의[2] 종교개혁은 다른 여러 나라와의 개혁과는 달리, 교황의 권위에 반하

---

1) 이상규,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서울: SFC출판부, 2004), p.14.
2) 엄밀히 표현하면 잉글랜드가 맞겠다.

여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었다. 즉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Henry Ⅷ, 1509-1547)와 그의 세 자녀이며 계승자인 에드워드 6세(Edward Ⅵ, 1547-1553), 메리(Mary, 1553-1558),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Ⅰ, 1558-1603)[3]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다.[4] 이는 왕이 일으킨 변화였으며, 카톨릭 교회를 영국국교회[5]로 만드는 것이었다. 헨리 8세는 신앙을 이유로 천주교와 결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에는 카톨릭의 신학과 예전,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정치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대륙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물결은 영국에도 여러모로 영향을 끼쳤고 국교의 온전치 않은 개혁에 반발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을 비국교도라 부른다. 본고에서는 국왕중심의 영국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론 및 구성

비국교도의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 Watts의 「Dissenters」를 주 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당시에 교차되는 청교도 출현과 관련된 다수의 책들과, 침례교의 출발점을 다루는 책들을 참고하였다.

---

3) 엘리자베스는 서자를 남기지 못하고 서거함으로 조카뻘 되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란 이름으로 영국의 왕으로 취임한다. 이는 엘리자베서 여왕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로서 튜터 왕가가 막을 내리고 스튜어트 왕가가 시작된다.

4)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2) p.604.

5) 영국 국교회는 영문에서 The Church, The Church of England, The Anglican Church, The Established Church, Ecclesiastical Anglican 등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영국 국교회'로 사용된다.

먼저 비국교도란 용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Watts는 그의 책 「Dissenters」의 서론에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린다.[6)]

Anabaptists라는 표현은 튜더(Tudor)왕조에서 성인세례 주창자만이 아닌 롤라드(Lollards)의 보다 급진파의 후계자들과 네덜란드에서 온 비정통 사상을 수용한 자들을 부르던 호칭이었다. 'Brownist', 'Seperatist'는 초기 스튜어트 왕조 시절, 영국교회 개혁에 대하여 청교도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성교회의 교회법과 치리를 비판한 극단의 프로테스탄트들이다. 'sectary'는 크롬웰의 개혁에도 따르지 않았던 종교적 급진파를 말하고 'Dissenter'는 찰스 Ⅱ세의 복고 이후 이전의 'sectary'들과, 자신들의 교구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복구된 감독교회에 불복한 많은 이들을 부르는 용어다. 'Nonconformist'는 처음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영국 국교회와 연합하면서도 다른 기도서를 따르는 이들을 부르던 명칭이었으나 1662년 이후에는 영국 국교회와 분리한 이들을 의미하게 된다. 19세기 중반까지는 기성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린 프로테스탄트를 총칭하기 위해서 'Dissenter'가 쓰였으나 1841년 발간된 Edward miall의 신문, 「The Nonconformist」에 의해 'nonconformist'가 대중화되었다. 이 명칭들이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데 비해 Free Churchman은 보다 높은 형태의 교인됨을 주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영국 튜더 왕조의 종교개혁시기와 이후 제임스 Ⅰ세까지 시기에 국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린 프로테스탄트를 총칭해서 비국교도라 부르겠다.

전체적인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비국교도의 배경과 기원을 다룬다. 먼저 영국 국교회가 어

6) Michael R. Watts, 「The Dissen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2-3.

떻게 종교개혁을 수행했는지를 보고 비국교도가 생겨날 수 있게 한 여러 기원을 본다. 그리고 본격적인 비국교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로버트 브라운도 Ⅱ장에서 다루었다.

Ⅲ장에서는 과격하게 그들의 관점을 제시하였던, 진보적 비국교도인 헨리 베로우, 존 그린우드, 프란시스 존슨, 존 스미스를 다룬다.

Ⅳ장에서는 위의 진보적 비국교도들과 교차하면서 영국 국교회에 대해서도 교류를 허용한 헨리 제이콥과 존 로빈슨을 중도적 비국교도라 이름하여 다룬다.

Ⅴ장에서는 비국교도의 신학을 그들의 교회론에 의거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비국교도의 배경과 기원

비국교도의 배경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는 그들의 출발점이 된 국교회가 각 왕들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종교개혁을 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비국교도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들 중에서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친 위클리프의 롤라드 주의와 화란의 재세례파, 그리고 동시대를 관통하며 영향을 끼친 칼뱅 및 칼뱅주의의 기원을 살필 것이다. 덧붙여서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비국교도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로버트 브라운을 살피도록 하겠다.

1. 영국 국교회의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Henry Ⅷ, 1509-1547)와 그의 세 자녀이며 계승자인 에드워드 6세(Edward Ⅵ, 1547-1553), 메리(Mary, 1553-1558),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Ⅰ, 1558-1603)[7]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다.[8] 이는 왕이 일으킨 변화였으며, 카톨릭 교회를 영국국교회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각 왕들이 어떤 방식으로 종교개혁에 임했는지를 살펴보며 그 것에 영향을 준 사건들과, 그리고 왕들의 종교개혁이 준 영향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살펴보고자 한다.

---

7) 엘리자베스는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서거함으로 조카뻘 되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란 이름으로 영국의 왕으로 취임한다. 이는 엘리자베서 여왕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로서 튜터 왕가가 막을 내리고 스튜어트 왕가가 시작된다.

8)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p.604.

1. 1. 헨리 8세(Henry Ⅷ, 1491-1547)

영국 종교개혁은 헨리 8세에 의해 시작되었다. 1509년에 17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헨리 8세는 대륙 종교개혁의 소식을 접했으나 오히려 7성례를 지지하는 책을 써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하였다. 이로써 1521년 왕은 교황으로부터 카톨릭 '신앙의 옹호자'(Defender of the Faith)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이러한 왕이 종교개혁을 허락한 것은 안정적인 왕위승계를 위한 왕자의 부재 때문이었다.[9]

헨리 8세는 스페인 왕실 출신[10]인 왕후 캐더린(Catherine)과의 사이에 딸 메리(Mary)만을 두고 있었다. 더욱이 캐더린은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자녀 출산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이 약해질 것을 염려한 그는 상속자가 될 왕자를 얻기 위해 새로 결혼을 하려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캐더린과 이혼해야만 하였다.[11] 그리하여 왕은 본시 형수였던 캐더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해줄 것을 교황청에 청원하였으나 교황은 캐더린의 조카이며 이태리의 지배자인 찰스 5세를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헨리 8세는 1529년부터 1636년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로마 카톨에서 독립하여 영국 국교회를 형성하는

---

9) Walker, p.541.

10) 헨리 8세의 아버지이며 튜더왕조의 개척자인 선왕, 헨리 7세는 스페인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자기의 태자인 아더(Arthur)를 스페인의 국왕 페르디난드(Ferdinand)왕의 딸인 캐더린(Catherine of Aragon)과 혼인시켰다. 그러나 아더(헨리의 형)는 결혼 4개월 만에 사망하였으며, 스페인은 왕위계승자가 된 헨리 8세와 형이 남긴 미망인 캐더린과 결혼시킬 것을 제안했다. 원래 교회법은 자기 형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으나 결혼을 위해 쥴리우스 2세 교황이 특별한 윤허를 내렸고, 국왕은 그의 지참금과 스페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승인하였다. 결국 헨리 8세는 12살 때, 거의 7살 연상인 캐더린과 결혼하였다.

11) Andre Maurois,「영국사」신용석 역, (서울: 홍익사, 1986) p.226.

법안을 통과시킨다.[12)]

제 1차 의회 (1529. 11. 3 - 12. 17)에서는 유언법(Probate Act)과 장례법(Mortuaries Act)을 제정, 통과시켜 그 동안 유언을 지켜봄으로써 성직자들이 받던 사례금을 금지시켰고, 성직자가 장례를 치루어 준 후 금전적 보상을 받던 관례 또한 막아버렸다. 제 2차 의회 (1531. 1. 16 - 3. 31)에서는 전국 성직자들의 회합을 통해 왕이 영국교회의 수장임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제 6차 회의에서 의회법에 포함되어 확실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제 3차 의회 (1532. 1.15 - 5. 14)에서는 성직자 복종법(Submission of Clergy)을 선포하여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종교집회나 새로운 교회 법규의 제정도 할 수 없도록 했고, 종교회의의 대의원 모두를 왕이 지명하도록 했다. 또한 안네이트 법(Annates Act)을 만들어 1487년부터 주교로 임명해 준 대가로 로마 교황청에 지불해 오던 돈, 즉 안네이트를 금지시켰다. 제 4차 의회 (1533. 2. 4 - 4. 7)에서는 상소 금지법(Act in Restraint of Appeals)을 제정해 왕의 통치권을 벗어난 어떠한 상소도 로마에 올릴 수 없게 했다. 즉 왕을 통하여, 왕의 허락을 받고 로마에 탄원을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소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교황 숭배 금지령(Act of Praemunire)을 완결하는 것이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와 앤 불린과의 결혼이 무효임을 선포하고, 7월 11일 헨리 8세를 파문하는 교서를 내렸다. 제 5차 의회 (1534. 1. 15 - 3. 30)에서는 성직자 복종법과 상소금지법을 재확인하여 정식으로 입법화했고, 주교 임명법(Act for the Election of Bishops)과 교황 사면 금지법을 제정하여 왕이 주교를 임명, 또는 면직시킬 수 있게 되고, 교황 대신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면권을 행사하며, 수도원에 대한 순찰권도 왕에게 넘어왔다.

---

12) M. W. Patterson, 「A History of the Church of England」(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20), pp.214-230.

또한 캐서린과의 결혼 때 제정한 왕위 계승법을 폐기하고 새 왕위 계승법을 만들어 앤 불린과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제 6차 의회 (1534. 11. 3 - 1535. 2. 4)에서는 수장령(Act of Supremacy)이 구체적으로 법령화되어 선포되었으며, 반역자법(Treasons Act)을 제정, 왕권에 거역하고 수장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나 국왕을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자는 누구든지 대역죄인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수장령은 아래와 같다.

> 왕은 마땅히 영국 국교회의 최고 수장의 자리를 차지할 권위가 있지만, (중략) 이러한 법규는 의회의 권위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왕권을 계승한 영국의 국왕들이 이 땅에서 영국 국교회(Angicana Ecclesia)의 유일한 최고 수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과 그의 계승자인 국왕은 때때로 모든 잘못과 이단과 악습과 범죄와 멸시와 악함을 억누르고 바로잡으며 개선하고 정리하며 올바르게 하고 억제하고 고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권위를 지니고 있다. (이하 생략)[13)]

이 수장령의 내용은 교회의 모든 권한은 왕에게 귀속하며,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의회는 이를 법규로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즉 수장령의 핵심은 영국에서 교황의 모든 권한을 배제하고 이를 국왕에게 돌리는데 있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수장령의 재정, 공포에 의해서 이제 영국 국교회는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어진 제 7차 의회 (1536. 2. 4 - 4. 14)에서는 군소 수도원 해산법(Act for dissolution of smaller monasteries)을 제정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작은 수도원 및 수녀원들을 해산하고 대형 수도원 및 수녀원들을 억압하

---

13) 심창섭·채천석편저, 「(원 자료 중심의) 근. 현대교회사」 (서울: 솔로몬, 1999). pp.51-51. 9. 수장령, 1534

기 시작했다. 당시 수도원과 수녀원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영국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구실로 거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이때 해산된 수도원의 수가 300여개였다고 한다.[14] 이렇게 몰수한 재산은 6개 교구를 새로 설립하고 농민층의 복지, 학교설립, 해군력 증강 등에 쓰이기도 했으나 헨리 8세 자신의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상당 액수를 지출하기도 하였다.[15]

반외세적인 의회는 이 일련의 과정을 승인하였다. 카톨릭에 속해 있던 많은 하급성직자들은 국교 관리 조직에 소속됨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환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관 토머스 모어와 존 피셔 주교는 카톨릭 신앙을 수호하겠다고 하여 단두대에서 죽었다.

「10개 조항」은 1536년 헨리 8세가 자신이 마련한 교회 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이것은 영국 국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신조이다. 그 내용에서는 성서, 역사적 신조들(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그리고 아타나시안 신조), 그리고 초기 4개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교리들을 신앙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신조는 매우 대립적인 세기에 영국 교회에 통일된 모습을 부여하려다 보니 모호한 문서가 되어버렸다.[16] 예를 들어 이 조항에는 세례, 고해성사, 성만찬만을 언급하면서도 카톨릭이 인정하는 나머지 4 성례들의 합법성은 부인하지 않는다. 유아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선포되었다. 그 이유는 "사망한" 유아들이 "유아

---

14)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p.544. 이 해산에 곧이어 거대 수도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체하여 1536년부터 1540년 사이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해체된 수도원 수가 약 800개였고, 약 9,000명의 수도사, 수사, 수녀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15) Owen Chadwick, 「종교개혁사」 서요한 역,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9) p.111.

16) Richard Stauffer, 「종교개혁」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p.114.

세례로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계속 유지했다. 성찬에 있어 "성체식에서 빵과 잔의 형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본질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존한다."고 함으로써 화체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내려놓기도 하였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인정하면서 연옥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를 삼갔으며, 성경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칭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멜랑흐톤을 인용하고 있지만 카톨릭을 만족케 하려는 뜻에서 죄인들은 "회개로 그리고 사랑을 겸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형상들을 파괴할 필요는 없으나 형상들에게 드리는 헌신과 그것들 앞에서 피워지는 향과 예배는 금지했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와 성자 숭배는 중재역할을 한다며 유지했다.[17] 「10개 조항」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신학적인 모순들을 안고 있어 영국 국교회 개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후, 1538년에 나온 「왕의 지령」(Royals Injunction)은 그보다는 분명한 개신교적 어조를 보여준다.[18] 여기서는 성상, 성유골, 순례 행각 등을 비난하였고 사제들로 하여금 신도들에게 영어로 십계명, 주기도, 사도신경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

헨리 8세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영어 성경의 번역이었다. 1535년 마일스 커버데일이 망명 생활 중에 영어 성경 번역을 처음으로 완성했다. 1537년에는 존 로저스가 런던에서 모국어 성경을 출판했

---

17) William R. Estep,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라은성 역, (서울: 그리심, 2002) p.515.

18) Richard Stauffer, p.114. 왕의 지령이 나오기 전에 발간된 감독의 책으로 알려진 「기독교인 관례」(Institution of the Christian man)의 경우는 7성례를 지지하는 등 친 카톨릭적이었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면에서 계속 이렇게 표류하였다.

는데 이것은 그가 토머스 매튜(Thomas matthew)라는 가명을 사용했기에 "매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1539년 4월 커버데일의 저작인 소위 대 성경(Great Bible)[19]이 출판되었다.[20] 이렇게 영어 성경을 출간하고 그 성경을 읽게 한 일련의 과정은 영국인들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원리가 발을 들여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21]

그러나 1539년에 나온 「6개 조항」은 더 카톨릭적이었다. 첫째 조항은 화체설을 지지했고, 둘째 조항은 빵과 포도주 두 가지로 하는 성찬의 필요성을 부인했으며, 셋째는 사제들의 결혼을 금했고, 넷째는 순결 서약 준수를 요구했으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개인 미사와 고해성사의 유지를 명했다.[22] 「6개 조항」 법은 화체설을 대적하는 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그 가혹성 때문에 "6줄로 된 회초리"란 별칭을 얻었다.[23] 신학적으로 카톨릭에 가까워진 이런 현상은 1543년에 출판된 「필요한 교리와 기독교인의 박식함」(The Necessary Doctrine and Erudition of a Christian Man)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헨리 8세가 손 봤기 때문에 "왕의 책"(The King's Book)이라 불린 이 책은 다분히 개신교에 반하는 내용이었다.[24]

이렇듯 헨리 8세가 주도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개혁운동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위기에 대처한 일련의 구조적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온전치 않은 개혁이었고 온건성(Moderation)과 중도

---

19) 대성경(Great Bible)은 크렌머 성경(Cranmer's Bible)로도 불렸다.

20) Walker, p.545.

21) William A. Scott, 「개신교신학사상사」 김쾌상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p.103.

22) 심창섭·채천석편저, op.cit., pp.52-53. 10. 여섯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령, 1539

23) Richard Stauffer, p.115.

24) 이동섭, 「영국의 종교개혁」 (서울: 수서원, 1990). p.42.

(Via media)가 영국 국교회 종교개혁의 특성이 되는 출발점 이었다.

1. 2. 에드워드 6세(Edwards Ⅵ, 1537-1553)

1547년 헨리 8세가 죽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그를 계승하였다. 어린 왕인 에드워드 6세에게는 종교개혁의 지지자였던 섭정 에드워드 세이모어(Edward Seymour)[25]가 있었다. 에드워드 6세는 그의 섭정 세이모어와 함께 개혁운동을 진전시켰다. 연옥을 지칭하는 일체의 문구나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현란한 사제복의 착용을 금하였으며, 사제(priest)는 목사로 제단은 성찬상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성찬에서는 평신도들에게도 떡과 잔을 허락하였으며 기부금을 낸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는 채플을 폐지하였다.

1547년 7월에는 「왕의 지령」(Royal Injunctions)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종교적 행진들을 금했고, 서신서와 복음서를 영어로 읽도록 명령했으며, 사제들에게 신약을 공부하되 에라스무스의 성경 풀이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설교자가 없을 때에는 크랜머가 편집한 「설교집」(Livere des homelies)을 대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책이 나온 후 몇 달 뒤에 국회는 반개혁적이었던 6개 조항을 폐지했고 성경에서 받은 소감피력과 해석에 족쇄를 채우는 모든 구속을 제거했으며, 두 종류(빵과 포도주) 성찬을 하게 했고, 수익금으로 고인을 위한 미사를 거행하려했던 모든 기금들을 왕을 위해 몰수한다고 선포했다. 1548년에 정부는 교회당 내진에 있는 성상들의 철거를 명했고, 사제들의 결혼을 양해해주었다.[26]

---

25) 오덕교, 「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p.391.
후에 에드워드 6세는 세이모어를 서머셋(Somerset) 공작으로 임명하고, 호민관(Protector)이라 칭하였다.

26)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pp.547-548.

에드워드 6세는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혼란가운데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1549년 '일치령'(Act of Uniformity)[27]을 선포하고 1월에는 크랜머가 주재한 12명의 신학자 위원회에서 「공동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를 발표하였다.[28] 이 책은 최초의 영어로 된 기도서였고 카톨릭 교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일에 조심하면서도, 떳떳한 양심으로 「기도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기도서」에는 라틴어식 미사제도가 상당부분 간직되었으나 제사적 서식, 축성시 빵과 포도주가 변형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용어들을 피하였다. 이렇게 「공동기도서」는 상당히 개혁적이면서도 영국 국교회의 특징인 '중용의 길'의 모습도 드러내주었다.[29]

좀 더 확실한 개혁을 원한 크랜머는 스트라스부르그의 개혁자요, 성만찬에 대해 칼뱅주의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상가인 부처(Martin Bucer)를 영국에 초빙하였다. 그리고 이 공동 기도서의 사본을 부처에게 보내어 시험과 비평을 의뢰하였고 부처는 1549년 기도서가 갖는 신학적 문제성을 제시하였고[30] 1551년에는 「검열」(Censura)라는 책을 써서 성찬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 사제의 복장,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세례 때 흰옷의 착용,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 귀신 쫓아내는 의식 등 기도서의 문제성을

---

27) 한국어 번역시 통일령과 일치령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본고에서는 뜻을 살리기 위하여 일치령으로 하였다.

28) Ibid., p.548. 이 책은 크랜머가 중세기 영국의 예배 의식에 기초하면서, 추기경 페르난데즈가 1535년에 출판한 개정된 카톨릭의 일과기도서(breviary)를 약간 참고하고, 1543년에 발행된 퀼른의 대주교 비스의 루터적 경향의 잠정적 「권면」(Consultation)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29) 칼뱅은 이 기도서에 대해 "허용할 수는 있지만 부적절한 내용들로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Roland Herbert Bainton, 「16세기 종교개혁」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2) p.184.

30) James Heron, 「청교도 역사」,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pp.66-67.

다시 한 번 지적하였다.[31] 더하여 부처는 크랜머의 동의 아래 왕에게 헌정하는 '보다 원시적인 교회제도의 초고'란 논문을 준비하였다. 이 논문에서 부처는 감독들과 장로들은 근본적으로 하나이며 똑같은 직책이므로 장로들과 함께 모이는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감독들에게 요구함으로 감독제도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교회 훈련을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에드워드는 부처의 이 논문에 찬사를 보내며 이에 근거하여 여러 개혁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32]

마르틴 부처의 이러한 도움과 피터 마터(Peter Martyr)로 알려진 버미글리(Bermigli), 또 그 외의 일단의 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아 1552년에는 첫 번째 기도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2공동기도서」(The Second Book of Common Prayer)가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고대 예배의식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칼뱅주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귀신을 쫓는 의식,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 세례를 베풀 때 목사의 중백의 착용, 견신례 때에 기름을 바르고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 장례 때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비밀 고해성사, 성체 예배 등을 폐지하였다. 특히 미사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으며 제단이라는 말은 식탁으로, 사제는 목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성찬을 주관하는 말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대에게 주노니 그대의 몸과 영혼은 영원한 삶으로 보존되리라"는 말에서 "그대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것을 들고 먹으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 속에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말로 바뀌었다.[33] 에드워드는 1552년 '새 일치령'(New Act of Uniformity)를 선포함으로 「제2공동기도서」가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34]의 예배 지침서가 되었

31) 오덕교, 「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p.396.
32) James Heron, 「청교도 역사」, pp.66-67.
33) Ibid., p.72.

다.

1553년에는 크랜머를 위시하여 니콜라스 리들리(Nicholas Ridley), 요한 낙스 등이 함께 만든 「42개 조항」이 나왔다. 이것은 좀 더 개신교적이었다. 여기서 면죄부, 성상과 성유골 숭배, 연옥 그리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화체설을 부정하였고, 따라서 성찬에서 남는 것을 보존하거나 그것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교황이 영국 교회에 대해 가지는 모든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감동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죄를 사할만한 어떤 가치도 없음을 단언했으며 예전에 대한 칼뱅적 개념을 옹호했고 교회나 공의회들도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조는 에드워드의 공인을 받아 선포되어 영국 국교회의 신조가 되었고, 모든 성직자와 교사,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할 때 반드시 이 신조를 따르겠다고 서약하도록 하여 신앙적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 신조는 메리여왕의 천주교 회기로 인하여 잠시 빛을 못 보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하여 39개조로 약간 수정되어 오늘날까지 영국 국교회 교리의 기초가 되었다.[35]

에드워드는 이렇듯 영국교회 특유의 중도적인 성향가운데에서 개혁적인 모습을 나타내었고 많은 대륙의 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의 개혁을 이끌어갔다. 그러나 병약한 그는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요절하고 말았다.

---

34) 영국국교회는 1836년부터 성공회(Anglican Church)로 불려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성공회라는 이름은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요, 거룩하고, 공변되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구절의 성(聖)과 공(公) 두 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교감독제라는 뜻에서 Episcopal Church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35) 오덕교, 「종교개혁사」, p.397.

1. 3. 메리(Queen Mary : 1516-1558)

이후 왕위에 오른 메리는 열렬한 카톨릭 옹호자였다. 메리는 스페인 공주의 딸로서 스페인 왕 필립2세와 결혼을 할 만큼 스페인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었다.[36] 그녀는 신중하게 에드워드 6세 통치 하에서 투옥되었던 주교들을 석방하고 그들의 도움과 교황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전임자가 통치 기간 중 포고하였던 교회법들을 폐지하였다. 예배 의식들도 헨리 8세 시절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런 결과로 1554년 교황 특사인 레지날드 폴(Reginald Pole, 1500-1558) 추기경은 교황의 사면을 전하였다. 이렇게 로마의 권위가 인정되자 의회는 반 교황적 법들을 폐지하였고, 헨리 8세 통치 초기의 상황으로 교회를 되돌려 놓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회는 이단자들을 사형으로 처벌했던 법들의 효력을 인정함으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피흘리는 메리'라는 명칭이 여왕에게 붙게 되었다. 불과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크랜머[37]를 위시하여 약 280명[38]이 이 법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박해는 1558년 11월에 메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메리의 이러한 카톨릭으로 회기하려는 통치는 여러면에서 실패작이었다. Moorman은 그 이유로 첫째 때가 너무 늦었고, 스페인 사람과의 결혼으로 국민이 등졌으며, 극한적이고 야만적인 박해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미 결혼한 성직자들을 쫓아냄으로 정적을 많이 만들었음을 들고 있다.[39] 한편, 약 800명의 개신교도들을 대륙으로 망명하도록 허용한 것과

---

36) William R. Estep,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pp.551-552.

37) 크랜머는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7개에 달하는 회개문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화형당하기 직전 자신이 했던 서명을 부끄러워하며 자기가 이미 저술한 책들이 자신의 신념을 대변함을 고백하고 죽었다.

38) "273명이 순교를 당했고, 그 가운데 201명은 평신도였다. 이들 가운데 78명(남자)은 장인계층이고, 60명은 여인들이었다." Estep, p. 531.

이들이 반카톨릭 선전 및 영국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문서를 퍼트리게 한 것은 메리 입장에서는 큰 실책으로 볼 수 있겠다.[40]

이런 메리의 일련의 정책과 그 시행은 로마에 대한 영국민의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종교개혁에 대한 영국민의 수용태세를 오히려 강화시켜놓았다.[41] 또한 이 때 유럽에 망명한 자들은 대륙의 종교개혁사상을 더 깊이 배우게 되어 후일에 영국 종교개혁에 기여하게 되었다.

1. 4. 엘리자베스 1세 (Queen Elizabeth Ⅰ, 1533-1603)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한 엘리자베스 1세는 좀 더 친 개신교적이었다.[42] 그러나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자 메리 여왕 때 유럽대륙으로 피했던 개혁자들이 속속 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열렬한 칼뱅주의자들이 되어, 가는 곳마다 제네바 교회 형태를 심으려고 하였다. 반면에 주교회 내부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즉 주교구 회의가 시작되면 성직자들이 미사는 희생제사라고 확언하면서 국왕 지상권을 반대하고 화체설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43]

엘리자베스는 이런 종교적 분쟁 해결을 가능한 한 쉽게 수용하려 하였다. 그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극대화하기를 원했다.[44] 따라서 그녀의 종교적 이상은 다수의 영국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

39) John R.H. Moorman, 「A History of the Church in England」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80). pp.197-198.

40)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8) pp.305-306.

41) Justo L. Gonzalez,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p.128.

42) 윌리암 호가드 등의 학자들은 그녀가 참된 종교적 확신으로 교회 정치에 이끌림을 받았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stauffer, p. 125.

43) Estep, p. 535.

44) 당시 스페인 대사 페리아(Feria)는 '그녀는 국민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국민들도 자기를 지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고[45] 그녀의 종교정책은 중용과 의도적인 모호성을 띄게 되었다. 교회는 교역자와 예배에 있어서 개신교적 정서가 허용하는 한, 충분히 이전의 예배를 따랐다.

1559년 엘리자베스는 「수장령」에 나타난 '교회의 최고머리'(Supreme Head of the Church)란 표현을 '영국 교회의 최고 통치자'(Supreme Governer of the Church)란 칭호로 약간 바꾸었다.[46] 이 새 「수장령」과 더불어 새 「일치령」(The Act of Uniformity)이 선포되었고,[47] 이는 에드워드 6세 시절의 「공동 기도서」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성찬 참여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성례에 대한 경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실재 임재설 지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였고, 반카톨릭적 요소는 보다 더 적게 담겨 있었다.[48] 즉 성찬기도가 카톨릭화 된 것처럼, 카톨릭 성향으로 고쳐졌다.[49] 엘리자베스는 기도서도 카톨릭적인 요소와 프로테스탄트적인 요소를 함께 유지하는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였다.[50]

1571년에 제시된 「39개 조항」은[51] 현재까지 "영국 교회의 교리적 정책

실'이라고 보고하였다. Lewis W. Spitz,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p.395.

45) 임희완, 「영국혁명의 水平派운동」 (서울: 민음사, 1988) p.23.

46) 심창섭·채천석편저, op.cit., p.58. 12. 엘리자베스 여왕의 수장령, 1559

47) Ibid., pp.58-59, 13.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일령(Act of Uniformity), 1559 뒷부분에는 이 법령의 위반시에 첫번째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두 번째라면 일년간의 투옥, 그리고 모든 영적 권리의 박탈, 세 번째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그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48) Estep, p. 537.

49) Raymond Abba,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p.45.

50) M.W. Patterson, pp.288-291.

51) 39개 조항은 본래 1563년에 반포되었다. 그러나 성직자 회의에서 이 신조가 단지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의회는 1571년까지 받아들이지 않

강령"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은 종교적 온건정책을 폈던 엘리자베스가 만든 것답게 로마 카톨릭이나 청교도들에게 공히 위협적인 것들을 보류, 또는 첨가시키려 하였다. 이 39개 조항은 영국 교회의 매우 다양한 신학적 경향을 공존케 하는 중용적인 것이었다.[52]

1570년 이후 카톨릭 성직자와 일반신자는 교황에 대한 충성을 빌미로 하여 이단자가 아니라 대역죄로 처형되었다.[53] 동시에 개혁파도 박해가운데 있었다. 청교도주의와 분리주의자를 박해하는 데는 고등위원회(High Commission)의 힘이 컸다. 이것은 일반 법 소송에 얽매이지 아니하면서 심문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임명된 위원들(commissions)을 통하여 왕이 교회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제하는 헨리 8세 시대부터 있었던 편리한 도구였다. 위원회 체계는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엘리자베스는 이를 발전시켜서 더욱 영속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위원회로서 아주 효율적으로 된 것은 1587년 벤크로프트가 그 일원이 되면서였다. 1592년에는 그 권한이 정점에 달했는데 피고에 대하여 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했고, 증거에 대하여 본질적 규정이 없었다. 위원회에는 영국 어디서나 심문하고 투옥할 권한이 있었으며 감독 권위의 오른팔이 되었다.[54]

이렇게 튜더왕조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1534년 로마교회와의 단절을 선언함으로 시작되었으며 신앙적으로 말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랑을 체험한 이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로마교회와 절연

았던 것이다. 이는 엘리자베드의 개혁이 로마 카톨릭 세력과 청교도들 사이에 끼어있었음을 보여준다. 임희완,「영국혁명의 水平派운동」, p.24.

52) Andre Maurois, p.251.

53) Ibid., pp.253-253. 당시 147명의 성직자, 47명의 지방귀족, 그리고 막대한 수에 달하는 미천한 남자, 때로는 여자까지도 사형장으로 보내졌다.

54) Williston Walker,「기독교회사」p.609.

한 이후에도 예배의식이나 교리는 여전히 로마교회와 다를 바 없었고 단지 미사가 폐지되었을 뿐이었다. 에드워드 6세가 42개 조항을 통해서 개혁적인 교리를 작성하였지만, 메리에 의해 뒤집어 지고, 이후 등극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 헨리 8세와 같이 정치적이며 중립적인 노선을 취하였다. 이는 철저한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개혁을 단행하도록 촉구하는 이 사람들을 등장하게 하였다.

2. 비국교도의 기원

영국 비국교도의 기원은 급진적 기원[55]과 칼뱅주의 기원의 두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56] 그리고 급진적 기원은 15세기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롤라드주의와 16세기 초반 대륙의 재세례파의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2. 1. 급진적 기원

2. 1. 1. 롤라드주의

옥스퍼드에서 가장 명성이 높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

---

55) 이상규, p.97. 하바드대학의 교회사 교수였던 윌리암스(G. H. Williams)는 루터, 쯔빙글리, 칼뱅의 주류 개혁운동을 관료적 혹은 행정적(Magisterial) 개혁이라고 하고, 재세례파(Anabaptists), 신령파(Spiritualists), 복음주의적 합리론자(Evangelical Rationalists)들의 비주류를 급진적(Radical) 개혁이라고 명명한다. 전자는 개혁운동의 과정과 그들의 신학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후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였으므로 급진적이라고 보았다. 윌리암스 교수의 이러한 분류방식은 그 이후 교회개혁사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도 그의 영향에 따라 '급진적'이란 표현을 쓴다.

56) Watts, pp7-14.

는 1374년 왕명으로 루터보르트의 주교가 되었고 교황 그레고리 XI의 신학고문이 되었다. 그는 당시의 부도덕을 개탄하면서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원초적인 빈궁으로 돌아가야만 교회의 미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57] 그의 이런 생각은 사도적 청빈을 기대하던 많은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 경건한 수도사 등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교회의 부와 교황의 정치 간섭을 비판했는데, 그 와중에 나온 세속권이 물적 지배권을 갖는다는 주장은 교황청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58] 그래서 1377년에는 런던의 감독 코트니(W. Courtenay)에 의해, 그리고 1378년에는 교황 그레고리 XI의 교서에 의해 호출과 심문을 받게 되었으나 지지자들의 보호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그는 화체설을 거부하고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현존을 주장하였다. 더하여 위클리프는 성경이 하나님의 법임을 확신하였다. 위클리프는 1378년 그가 저술한 「성경의 진리」(The truth of Holy Scripture)에서 성경이 진실하고 오류와 모순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담는다고 생각했다.[59] 성경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하고[60]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1]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위클리프

57) Andre Maurois,「영국사」신용석 역, (서울: 홍성사, 1981) pp.176-177.

58) Justo L. Gonzalez,「중세교회사」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p.205.

59) John Woodbridge,「인물로 본 기독교회사 (상)」박용규 역, (서울: 횃불, 1993) pp.283-284.

60) 김명수, "존 위클리프의 성경적 신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 2004, p.66. 당시까지는 필사로만 전파되어야했던 성경은 신약필사본 한 권 값이 일꾼의 약 6개월치 월급이었다. 따라서 성경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만 성경보급이 가능했다.

61) Kenneth S. Latourette,「기독교사 (中)」윤두혁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pp.267-268.

의 제자들은 라틴어 번역판인 불가타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이 성경의 출판에 있어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책에 그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 것은 확실하다.[62]

그리고 그는 초기 탁발 수도사처럼 가난한 생활을 하는 제자들을 양성했다. 위클리프는 그들이 금전을 소유하는 것을 금했고, 꼭 필요한 때만 시주를 받도록 하였다. 그들은 손질하지 않은 양모로 짠 장의를 입고 맨발로 촌락을 돌아다니면서 지치지도 않고 위클리프의 교리를 설교했다. 이들은 청빈과 평등을 설교하여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선술집에서까지 성경을 토론할 수가 있었다.[63]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롤라드파"(Lollards-중얼거리는 사람)라 불렸다. 이것은 그들의 항상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 네덜란드어로 부르는 비웃는 말이었다. 이들은 초기에는 귀족층에서 시작하였으나 곧 민중 운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이들은 이들의 신앙을 지지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된 올드케슬 경(Sir John Oldcastle)을 구하기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더욱 큰 탄압을 받게 되고 영국사회 속에 숨게 되었다. 이들은 종교개혁 시대까지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었고,[64] 이들의 지하 운동은 제도화된 성직자들에게는 큰 불안 요소가 되었다. 이 롤라드 운동과 16세기 영국 종교개혁 사이에는 실질적인 연속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65] 롤라드 파는 영어성경을 확산시키는 것과 로마 교회에 대한 불만

---

62) John Woodbridge, p.284.
63) Andre Maurois, pp.177-178.
64) 1506년에서 1535년 사이에 적어도 60명의 사람들이 롤라드 이단으로 화형당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낙인이 찍히기까지 하였다.
65) Estep.,「르네상스와 종교개혁」, p.152.
Woodbrige,「인물로 본 기독교회사 (상)」, pp.285-286.

을 퍼트림으로 16세기 영국 종교 개혁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다.[66]

2. 1. 2. 재세례파

재세례파의 신학적인 특성은 이들의 이름과 달리 재세례 뿐만 아니라 성경의 문자적 해석, 그리고 보편 속죄이다.[67]

재세례파 운동은 스위스, 독일, 모라비아, 화란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복수 운동이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하인리히 불링거는 16개 집단으로 보았고, 조지 윌리암스는 3가지 유형(혁명적 재세례파 Revolutionay Anabaptist, 정숙 재세례파Contemplative Anabaptist, 메노시몬스로 대표되는 복음적 재세례파 Evangelical Anabaptist)으로 보았다. 또한 채드윅은 4가지 유형(스위스 형제단, 남부독일운동, 모라비아 공동체, 메노나이트)으로 나눈다.[68]

이들이 재세례파로 불리게 된 것은 유아세례를 인정치 않고 '신자의 세례'(believers' baptism)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신자의 세례'는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후 받는 세례를 의미한다. 즉 유아세례를 부인하는 의미이다. 이들은 유아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치 않고 재세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재세례파'라고 불린 것이다.

---

66) 홍치모,「종교개혁의 세계」, pp.334-335. 영국 종교개혁 연구의 원로로 인정받는 A. G. Dickens는 이 롤라드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운동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67) Watts, pp.7-8.
Estep,「르네상스와 종교개혁」pp.445-448. 에스텝은 재세례파에 대해 여러 견해(신약성경의 권위, 세례, 제자도, 두 세계 간의 긴장,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견해들이 재세례파를 이해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밝힌다.

68) 이상규, p.99.

재세례파의 근본이념은 16세기 당시의 국가교회(State church)가 신약교회 원리에서 떠난 타락한 제도로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귀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 베인톤은 이를 "Reformation이란 말은 루터의 개혁운동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Reformed (개혁파)란 말은 쯔빙글리나 칼뱅의 개혁운동을 지칭하고, Restored(회복)이란 말은 재세례파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했다.[69] 그들은 이렇게 신약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복귀주의자들이었다.

재세례파는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교회와 국가 간의 타협을 교회 타락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보았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의 두 번째 표징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이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된다고 하며 무저항주의와 절대평화주의를 견지했다. 세 번째는 삶과 예배의 형식주의였다. 내적 진실성보다는 의식, 외적 웅장함 등 제도화된 교권체제는 교회가 타락한 증거라고 보았다.

그들에게 세례는 구원의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믿는 자의 세례'는 회심의 표로서 교회 회중이 되는데 필수조건으로 보았다.[70] 따라서 그들은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회개하고 그의 마음이 변화하며, 그 결과로 새로운 생을 살아가기 열망하는 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화란 재세례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메노 사이먼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화란 재세례파의 역사를 말할 때, 메노 이전과 메노의 활동기, 메노 이후로 나눌 만큼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메노는 28세가 되던 1524년 3월에 화란 우트레히트에서 신부로 임직했다. 그는 이후 12년간 로마교 신부로서 일했다. 그는 미사에 대해 고민하

69) Ibid., p.110.
70) Ibid., p.111.

다가 신약 성경 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성경 연구는 미사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또한 그는 유아세례가 신약성경에서 베풀어진 사실에 유의하게 되었다.

메노의 이념은 첫째, 신교와 양심의 자유를 고양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의 '자유'개념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는 현대적 개념을 고양하는 데도 기여했다. 둘째는 비폭력 평화사상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평화봉사단, 반전평화운동 등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사랑과 봉사이다.[71] 이들은 한국에도 6·25동란 후 20여 년간 대구, 경북 지방에서 구호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했다.[72]

메노 사이먼스를 따르는 이들을 메노나이트라 불렀는데 이들은 "워터랜드파"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그 이름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1534년 이후 메노파가 많이 거주하게 된 북부 네덜란드의 별명이 워터랜드였다. 워터랜드파는 자기들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메노파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침례자(Doopsgezinden)로 불리길 좋아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로 쫓겨온 영국 비국교도들에게 영향을 끼쳤고,[73] 특히 1609-1612년에 존 스미스와 그를 따를 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74]

---

71) 이상규, pp.126-127에 이런 예가 나온다. "재세례교도라는 이유로 투입되었던 덕 필립스는 탈출하여 얼음덮인 강을 건너던 중, 추적하던 관헌이 얼음이 깨지며 강에 빠지나 돌아와 그를 구해주고 다시 잡힌다.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해진다."

72) Ibid., pp.124-126.

73) Woodbrige,「인물로 본 기독교회사 (하)」, pp.96-97. Woodbridge는 이들이 영국을 거쳐 미국 개신교 사회의 성격 창출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힌다.

74) Estep,「르네상스와 종교개혁」, p.445.

2. 2. 칼뱅주의 기원

칼뱅주의 기원은 칼뱅이 편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국 국교회의 종교개혁에 도움을 준 것과, 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한 일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칼뱅이 처음 한 영국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은 1539년 3월 15일자 파렐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다.[75] 이 편지에서 칼뱅은 헨리 8세를 어중간하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한다. 칼뱅은 헨리 8세가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 7성례를 유지하려 하고, 영어 성경 번역과 보급은 하지 않고 도리어 성경읽기를 금하며, 존 램버트를 화체설을 따르지 않는다고 화형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계속 영국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쓰고 있다.

칼뱅은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승계하면서부터 영국의 종교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1548년 10월 22일에 서머셋 섭정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 교훈적인 설교와 엄격한 치리를 도입하고, 시급한 악습들을 폐하며, 신조를 작성하고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요리문답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크랜머 대주교의 요청에 따라 에드워드 6세에게도 직접 편지하였으며,[76]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을 그에게 헌정하였다.[77] 그가 1552년 10월 14일에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직접 영국을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있음을 내비치기까지 한다.[78] 칼

---

75) Phillp Schaff, 「스위스 종교개혁」 박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4) p.698.

76) 이 편지를 비롯하여 칼뱅이 영국에 보낸 여러 편지에 대해 에드워드 6세가 칼뱅의 노고를 치하했음을 프랑시스 부르조인느(Francis Bourgoyne)가 칼뱅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볼 수 있다. "… 매우 자상하게 당신의 건강과 사역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 그는 그 편지 때문에 매우 흡족했다고 밝혔습니다." W. Stanford Reid,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이훈영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p.219.

77) Phillp Schaff, p.698-689.

78) Ibid., pp.683-684.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저로 말하자면, 만약 제가 쓸모가 있다면, 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10개의 바다라도

뱅의 특사 니꼴라 데 갈라(Nicolas des Gallars)의 보고에서도 칼뱅의 편지에 대해 서머셋 공작과 에드워드 6세는 아주 우호적이었다.[79] 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다음 왕인 메리 치하에서 크랜머가 순교함으로 일련의 칼뱅적인 개혁들은 멈춰지게 된다.

그러나 메리 여왕의 통치기에는 많은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제네바로 피신함으로써 칼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영국 피난민들이 대륙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제네바 성경'(Geneva Bible)을 출판한 것이다.[80] 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한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가 칼뱅의 신학적인 영향력을 영국에 확대시켰다. 「기독교 강요」는 나오자마자 번역되었고, 6차례에 걸쳐 개정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여왕 자신은 칼뱅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받고자 하지는 않았다. 칼뱅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오르자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기독교인 무리를 소중히 다룰 것"과 "경건이 사라져버린 한 조국에 남아 있기보다는 조국에 있을 때 누리는 모든 이익을 포기한 망명자들을 모을 것"을 권유하기도 하며,[81] 국무대신으로 임명받은 버레이의 영주 윌리엄 세

건너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영국을 돕는 문제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별로 중요한 인물이 못 된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적극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어 나갈 것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제 몫을 하고자 합니다."

79) 오덕교, p.392.

80) 오덕교, p.401.

제네바 성경은 마일스 커버데일(Miles Coverdale)과 윌리엄 휫팅햄(William Whittingham)에 의해 번역되어 1557년 신약이 출판되고, 1560년 신구약이 완간 되었다. 이 성경은 베자의 라틴어 본문을 토대로 하여 '대 성경'을 신중하게 개역한 것이었고, 성경 옆면에 칼뱅주의적 색채를 띤 성경 해석을 가미하여 평신도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많은 청교도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81) W. Stanford Reid,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pp.230-231.

실(William Cecil) 등에게도 정도를 따라 개혁하도록 편지를 하기도 했으나 에드워드가 보여줬던 만큼의 관심을 얻는데 실패한다. 엘리자베스는 천성적으로 독립적이고 세심한데다, 외국인의 소리보다는 자국민에게 귀기울리려했기 때문이다.[82]

한편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에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논쟁점은 '제복논쟁'(Vestiarian controversy)이라고 불리는 성직자의 복장에 관한 것이었다. 이 논쟁은 1550년경에 시작되어 1566년에는 최고조에 달했다. 중백의로 불리는 성직자 복장의 착용을 거부하는 것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뜻에서였다.[83] 이 문제의 첫 논쟁자는 에드워드 6세 시대 때의 존 후퍼(John Hooper)였다.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위스에 망명 갔다가 돌아온 그는 성직자의 복장이 성경에 근거가 없으며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기인한 것이라며 복장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크랜머의 회유로 그는 글로체스터 주교 임직식에서는 복장을 착용하되 그 후로는 입지 않겠다고 결국 타협의 길을 갔다.[84] 그러나 이후, 엘리자베스의 여왕 취임 후, 토마스 샘슨(Thomas Sampson)과 로렌스 험프리(Laurence Humprey)의 주도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된다. 이들은 성직자의 제복착용을 규정한 39개조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여왕은 청교도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1566년 켄터베리 대주교인 파커가 발표한 '포고문'(Advertisements)를 통하여 성직자의 제복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여왕의 종교정책을 반대하는 자는 성직을 박탈하고 봉급도 받지 못하게 하였다.[85]

---

82) Ibid., p.235.

83) 김의환, p.477.

84) 칼뱅과 부처와 마터는 기본적으로 중백의 착용을 반대하나 후퍼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후퍼는 메리의 등극과 함께 1553년 투옥되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155년 화형에 처해진다. 오덕교, pp.399-400.

이런 가운데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는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에서 그의 영향력을 펼쳤다. '포고문'은 카트라이트가 캠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컬리지(Trinity College)에 전임 설교자로 부임하기 2년 전에 반포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카트라이트는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 초대교회 역사에 비추어 영국교회를 비판하였고, 이 일로 자신의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아래와 같은 6개 항목의 답변서를 보냈다.[86]

1. 주교제도는 비 성경적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신약원리에 따라 감독(목사, 장로)과 집사를 두어야 한다.
3. 감독은 순수하게 영적 기능만 담당해야 하며 집사는 가난한 자의 구제에 힘써야 한다.
4. 목사는 지교회를 가져야 하며 지교회의 신도를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5. 목사는 지교회 신도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6. 교회 정치의 본질적 책임은 목사와 장로회에 주어져야 한다.

이렇듯 그는 회중에 의한 목사 선택, 대주교좌나 부감독좌의 폐지 그리고 성직을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환원할 것 등을 주장하였고, 당회와 그 상회로서의 노회제도를 옹호하여 영국 장로교회 제도의 기초를 놓았다. 그의 이론은 칼뱅주의 신학을 따르며 장로 제도를 가장 성경적인 제도로 주장하며 감독정치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카트라이트는 1570년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이렇게 칼뱅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국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다. 장로교적 정신은 성장했고, 1560년대와 1570년대에는 다양한 장로

85) 홍치모,「종교개혁사」(서울: 성광문화사, 1996), p.176
86) 이상규, p.236.

교적 실험들이 있었다. 목사와 경건한 평신도들이 "예언들(prophesyings)" 이라 불린 설교와 토론을 위한 모임을 시도하였다.

3. 분리파 교회를 시작한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

엘리자베스 통치의 초기에는 교회법들이 엄하게 강요되지 않았다. 개교구 교회들의 예배에는 많은 자유가 성직자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되자 다양한 모습이 드러났다. 한쪽 극단에서는 「일치령」을 말로만 받아들이는 척하고 사실은 구교를 좋아하고, 때로는 구 기도서로 라틴어 미사를 은밀히 드리는 메리 시대의 성직자들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기도서와 주교 제도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일치령」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관습과 전례를 도입한 청교도들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두 극단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87] 주교 그린달이 1565년에 자기의 런던교구의 상황을 묘사한 것을 보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어떤 이들은 꼭 찬슬(chancel)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한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성당 본당에서 드려야 한다고 한다. 어떤 이는 성당 안에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설교단에서 회중을 마주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서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시편을 운율에 맞추어 노래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중백의를 입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입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주님의 식탁은 교회의 본당에 놓아야 한다고 하고, 찬슬에 놓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어떤 곳에서는 주님의 식탁이 제단 쪽으로 벽에서 한 야드쯤 떨어진 곳에 있고, 어떤 곳에서 주님의 식탁은 제단의 방향과 일치하여 벽에서 1야드 떨어져 놓여있는 곳도 있고, 찬슬의 중앙에 있는 곳도 있다. 어느 곳에서는 주의 식탁을 고정시

87) J. 무어만, 「잉글랜드 교회사 상」 김진만 역, (서울:성공회대학교 출판부, 2003) p315.

켜 놓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가대(trestle) 위에 놓여 있다. 카페트가 깔려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성사를 나누어줄 때 모자에 소백의를 입는 곳이 있고, 소백의만 입는 곳도 있고, 그 두 가지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어디서는 성반을 사용하고, 또 어떤 곳은 성작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 다른 곳에서는 평범한 잔을 사용한다. 어느 곳에서는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하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성체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서 받고 앉아서 받기도 한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이는 성천에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물동이에서 받기도 한다. 십자성호를 긋는 사람도 있고 긋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떤 성직자는 사각모를 쓰고 어떤 이는 라운드 캡, 어떤 이는 꼭지 모자를, 또 어떤 이는 '햇트'를 쓰기도 한다."[88]

이런 상황에서 에드워드 데링 같은 이는 1569년 여왕의 임석 하의 설교에서 너무나 많은 성직록들이 야바위꾼과 카드노름꾼들과 같은 자들이나 자기 양무리의 영적 복지보다는 사냥과 매사냥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불한당들의 차지가 되고 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교구 목사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음행"의 궁극적인 책임은 여왕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왕은 이 모든 폐해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89]

그러나 여왕의 해결책은 대주교 파커를 통해 교회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다.[90] 마침내 성직을 박탈당한 많은 사역자들이 토론한 후에, 기회가 있는 대로 개인의 집에서 낙스의 기도서를 사용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장로들을 선정

88) Gee, H.,「The Elizabethan Prayer Book and Ornaments」(1902), pp.164-5. Ibid., p. 316에서 재인용.

89) Ernest F. Stoeffler,「경건주의 초기역사」, 송인설·이훈영 역 (서울: 솔로몬, 1993) p.54.

90) James Heron,「청교도 역사」p. 106.

했고, 성례를 집전했으며, 야외의 들판이나 템즈강의 배 위, 혹은 개인의 집 등에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모여서 제네바 예배서에 쓰여 있는 대로 장로교 계통의 성도양육에 힘썼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 1550?-1633)은 영국교회의 목사로서 1579년부터 케임브리지에서 분리주의 경향의 설교를 했고, 영국교회의 감독제도를 비난했다. 그는 주교들을 도전하며 '탐심 많고 사악한 사람들'이고 '교회의 복지와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찾는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주교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주교들이 교회보다 더 위대하기를' 열망한다고도 말하였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자신들을 비교하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적그리스도로 만든다고 하였다. Browne은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설교 허가증을 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의 동생이 두 개의 설교 허가증을 받았을 때,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태워 버렸다.[91]

이 때 브라운은 로버트 해리슨(Robert Harrison)을 만났다. 그들은 캠브리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이때까지 그들은 청교도이지 분리주의자는 아니었다.[92] 그들은 1580년이나 1581년에 노르폭(Norfolk)의 173명의 청교도들과 함께 여왕에게 보내는 '정부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고위성직자들'을 깨끗이 해달라는 탄원서에 사인을 했다. B. R. White는 1581년 초기 무명의 청교도 작품을 거의 브라운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93]

1581년에 브라운은 그의 동료 해리슨과 함께 '교회언약'에 서약하는 절차를 거쳐 영국 최초의 분리파 교회인 독립회중교회(an independent

91) Watts, p. 27.

92) 브라운은 분리주의 노선으로 걸어가게 되나 험프리, 폭스, 샘슨, 리버, 위팅검, 외의 많은 개혁성향의 인물들은 그들이 원하는 종교개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교의 성직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 James Heron, p.107.

93) Watts, p.28.

gathered congregation)를 세웠다.[94] 교회언약에의 서약을 따라 교회 직분자들이 임명되었고 예배형식이 제정되었다. 영국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그들을 떠난 이들도 있지만, 박해가 있을수록 더욱 모여서 주님을 의존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이것은 재세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개념들인 교회는 오직 참 기독교인들로 구성될 것이며, 회중은 그 자신을 어떤 '언약'으로 속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95]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들은 한 무리로 연합하여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의 율법과 통치를 지키고, 그 안에서 무질서와 악을 금하며 이것에 스스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 또는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하며 이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에게 순종하겠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교회 내에서 질서 있게 기도, 성경봉독, 권면, 위로 등을 할 것을 말하는 예배 모범이다. 넷째는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넓히도록 노력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질서 있고 거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서약하는 등 교회 밖에서의 생동감 있는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다.[96]

이 일로 인하여 브라운은 그 해 여름에 몇 번 투옥되었고 그의 동료들은 1582년 네덜란드로 도피하여 미들버그(Middleburg)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같은 해에 브라운은 감옥에서 나와 네덜란드 교회에 동참했고,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양식을 보여주고 그들이 투르크족과 교황주의자들과 그리고 이교도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책」(A

94)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p.607.
95) Owen Chadwick, 「종교개혁사」, p.213.
96)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p. 139-141

Book Which Sheweth the life and manners of all true Christians, and how unlike they are unto Turkes and Papistes and Heathen floke)을 출판했다. 여기에 그의 분리파 교회관이 잘 나타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들을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고 세례를 통하여 그 체결한 언약을 확증함으로 한 무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의 통치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과 주가 되시겠다"는 것이다. 이는 즉 "그분의 교회를 향한 약속이요 확실한 언약으로서 교회가 기억하고 가르치고 고수해야" 하며 이렇게 하여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힌다."[97] 영국 교회는 성경을 따르는 개혁을 거절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하였다. 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정부의 비합법적인 형태를 실행했다. 그러므로 브라운은 "우리는 진실한 교회를 모으고 가꾸기 위해서 사악한 무리들 속에서 나와 우리들을 분리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98]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에 나타나는 조건성과 자발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자들의 무리로서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들어가며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율법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출간된 또 하나의 책[99], 「무엇에도 지체되지 않는 개혁

97) Ibid., p.143

98) 임춘배, "영국 분리주의 운동이 침례교 교회관 형성에 미친 영향,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93) pp.21-22

99) 브라운은 이시기에 시리즈 3권의 책을 발행했다. 「마태복음 23장에 관한 논문」(,A Treatise upon the 23 of Matthew)과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의 삶과 태도를 보여주는 책」A Book which sheweth the life and manner of all true Christians, 그리고 「무엇에도 지체되지 않는 개혁에 대한 논문」(A Treatise of Reformation without tarrying for anie)이다.

에 대한 논문」(A Treatise of Reformation without tarrying for anie)에서도 교회는 '심어지고 모아진',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기독교인이나 믿는 자의 모임'이라고 밝힌다.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 아래 있는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이어야 한다.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유대에 기초를 둔 것과 같이 교회 멤버와 그들의 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적절한 관계도 상호간의 동의(언약)에 기초해야 한다. 통치자들은 아랫사람의 복종과 봉사를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지도자들의 권위와 인도를 바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권위와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동의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동감과 동의에 의해 불려진다'.[100]

그가 이렇게 자발성과 언약을 강조한 이유는 그가 영국 교회의 부패원인을 믿음이 없고 부패한 자를 신자로 인정하는 데서 찾은 것에 기인한다. 그는 신자로 구성된 참된 교회를 조직하기를 바랐던 것이다.[101]

또한 이 책들에서 우리는 그의 회중주의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1. 개교회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로 구성되는 '모여진 교회'이다. 그러므로 목사나 일반 신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흡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자는 모두가 원리상 동등하다.

2. 교회는 성도들이 회집하여 성립되는 계약집단이다.

3. 교회는 상위집단 및 국가로부터 독립한 자치적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은 개체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회 내지 총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회는 목사와 장로들만이 회집하여 구성하는 대회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까지 포함하는 '장로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회가 지교회에 주는 권고는 어디까

100) Watts, p. 30.

101) 오덕교,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건국이념 비교" 「신복윤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2) p.572

지나 조언과 설득이어야 하며 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과 같은 것은 아니다.[102)]

이후 브라운은 1585년 캔터베리 대주교의 권위를 인정하고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의 영국교회가 참 교회이며 앞으로는 충성스러운 영국교회의 일원으로 살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해 버리고 만다. 그는 국교도들에게는 비겁쟁이가 되고 분리주의자들에게는 변절자가 됨으로 명예가 떨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분리주의 비국교도들을 일컬어 브라운주의자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02) 홍치모,「종교개혁의 세계」(서울:아가페, 1993), p.248

Ⅲ. 진보적 비국교도

로버트 브라운은 영국 최초의 분리파 교회인 독립회중교회를 세웠으나 그는 영국 국교회의 탄압 아래 그의 신조를 바꾸고 말았다. 그러나 진보적 비국교도로 분류한 본 장의 비국교도들은 로버트 브라운이 가졌던 신학적 시각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진 신조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망명으로 대가를 치루었다. 그들 중에는 신학적으로 과격한 모습을 지녔던 이들도 있었다.

1. 죽음으로 증명한 헨리 베로우(Henry Barrowe), 존 그린우드(John Greenwood)

1586년부터 1592년까지 영국 국교회에 반발하는 분리파 성향의 개념이 런던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나타났는데, 그 때 지도자로 급부상한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 존 그린우드(John Greenwood, ?-1593)와 변호사 헨리 베로우(Henry Barrowe, 1550?-1593)이다.

헨리 베로우는 그레이 법학원의 변호사였으며, 훌륭한 가문의 신사요 학식이 많고 솔직한 사람으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청교도적인 성향을 습득케 되었으며, 존 그린우드와의 친분으로 인해서 회중주의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는 1587년 그의 친구를 방문하려고 감옥에 갔다가 당시 대주교였던 휘트기프의 명령으로 체포되었다.[103] 대주교는 베로우의 죄가 교회에 오지 않고, 여왕에게 불순종하며

103) 당시 감옥에 갇힌 분리주의자들은 70여명에 달했고, 17내지 18명이 이미 감옥에서 죽었다. Slayden A. Yarbrough, "The English Seperativs influence on the Baptist Tradition of Church-state Issues", 「Baptist History & Heritage」, 20. 1985 p.18.

영국에는 참 교회가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1593년 3월 6일 처형되는 날까지 약 6년의 옥중 생활 동안 베로우와 그린우드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들은 영국교회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교회에 불경건한 많은 이단들을 받아들였고 거짓되고 비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했으며, 적그리스도적이고 불경건한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다고 편지와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렸다. 베로우와 그린우드는 브라운이 배교자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의 관점은 매우 유사했다. 화이트(B. R. White)는 이 세 사람이 1560년대 후반 런던 분리주의자의 공통적인 전통 위에 있다고 한다.[104]

1589년도에 베로우와 그린우드가 함께 구성하고 출판한 것으로 여겨지는 「런던 신앙고백서」(The London Confession)는 그들의 회중주의 교회관을 잘 보여준다.

> 교회는 오직 모든 것들 중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한 분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의 믿음, 하나의 구원, 하나의 소망으로 부름 받고, 하나의 고백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법인 최고자의 말씀에 의해 인도받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이미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더욱더 엄밀하게 고려할 때, 오늘날 세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들의 유일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그분의 사역자들과 법에 의해서 평화롭고 잠잠하게 지도를 받으며, 거짓 없는 사랑과 평화의 끈으로 믿음의 연합을 지키는 무리와 교제로 구성된다.[105]

---

104) Watts, p37.

105) Williston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3. p.33.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서 교회는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와 교제로 구성되며 교회의 모든 정치가 평신도 회중 전체의 몫임을 볼 수 있다.

베로우는 1590년 「잘못된 교회에 대한 요약된 발견」(Brief Discouerie of the false Church)과 1591년에 쓴 「M. 기포드의 책에 대한 명백한 반박문」(The Plaine Refutation of Giffords Booke)에서 회중주의의 원리들에 대한 정교한 해설을 시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영국교회를 참 교회로 보지 않았다. 특히 그 권징에 있어서 강경한 어조를 보였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만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단체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자유롭게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한 사람들만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기로 동의하고 그들 스스로 권징에 종속되기로 동의함이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한 교회는 정부의 강제력이나 악한 사람들을 억지로 모아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106]

또한 이 책에서 교회의 자발성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각 교회는 독립성이 고수되어야 하고 상위계급체제는 거부가 되었다. 어떤 기관이나 사람도 자발적 언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개교회를 간섭할 수가 없으며 개교회 내에서 모든 교회의 운영이 결정되고 개교회 스스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이는 '회중교회정치'(Congregationalism)을 보여준다.[107]

베로우는 왕에 대해서도 영국 내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통치

---

106) Edmund S. Morgan, 「Visible Saint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23-27.

107) 원종천, p.152.

자로서 명예, 존경 그리고 복종을 받는 것이 정당하나 교회의 문제에서는 최고의 복종은 단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다. "왕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의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교회를 위한 법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며 '왕이 교회의 머리다(헨리 8세처럼)', '왕이 교회의 통치자다(엘리자베스 1세의 경우처럼)'라는 선언은 성경의 가르침들과는 반대된다고 하였다.[108]

베로우는 또한 "왕은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어떤 사람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개인 구원의 확신 없는 누구나 받아들이도록 교회를 강요할 권리도 없다. 그러나 왕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지식으로 주시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실천하면서 선언하고 건설해야 하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타락한 종교들과 예배와 사역들을 금지시키고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09]

베로우와 그린우드는 런던의 사형집행장인 타이번(Tyburn)에서 1593 4월 6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약 6주 후, 5월 29일에 그 자리에서 사형당한 존 펜리(John Penry)는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말을 남겼다. '투옥도, 재판도, 그리고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간의 양심을 확신시키는 무기에 적수가 못됩니다.'[110] 베로우와 그린우드는 사형을 당할 때까지 지속적인 저술을 통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고, 죽음으로 그들의 주장이 가치있는 것임을 증명하였다.

2. 망명목회를 통해 비국교도를 발전시킨 프랜시스 존슨 (Francis Johnson)

108) Yarbrough, p.19.
109) Ibid.
110) Watts, 39.

헨리 베로우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분리파의 지도자는 프랜시스 존슨(Francis Johnson, 1562-1618)이었다. 그는 캠브리지대학의 그리스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1589년경 감독체제 대신 장로제를 옹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축출되었고 투옥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1590년에서 1591년경에 네덜란드 미들버그(Middelburg)로 갔고 그곳의 목사가 되었다.

이 때 프랜시스 존슨은 교회언약을 제정하여 집행했다. 이 교회언약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먼저 명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교회 직분들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할 것임을 고백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함께 연합하며 서로를 돌보고,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라고 명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때에 순복한다. 그리고 이 언약에 서약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이 교회에 한번 멤버가 된 사람은 이 교회처럼 치리제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 이외에는 어떤 다른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다고 밝힌다.[111] 존슨이 이 미들버그 교회언약을 만들 때 그는 분리파의 과격성을 따르지 않았으나 그 가운데 나타나는 회중들의 자발성,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조건적인 순종 등을 통하여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과 교회 언약에 의한 책임의 강조점을 볼 수 있다.

그 이후 변화가 생겼다. 전술했던 베로우와 그린우드가 쓴 책들은 영국에서 출판할 수 없어서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다. 네덜란드 영국 대사는 이 책들의 출판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다가, 프랜시스 존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비록 청교도였지만, 당시 그는 분리파가 아니었기에 영국대사의

111) 원종천, pp152-154.

요청을 수락했다. 결국 네덜란드의 동의를 얻어 책들의 출판이 금지되었고 출판된 책들은 불태워졌다. 하지만 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그 중 두 권을 가져다 읽게 되었다. 그는 그 책들을 읽는 중에 문제점을 발견하는 대신 오히려 큰 감명을 얻게 되었다.[112] 그는 곧 런던으로 가서 당시 감옥에 있던 그 책들의 저자들인 베로우와 그린우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후 진리에 대한 만족과 큰 확신을 얻었고 미들버그로 돌아가는 대신, 런던에 있는 분리파교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1592년 10월에 그 교회의 목사로 선출되었다.[113]

그는 1593년부터 1597년까지 런던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 시기에 의회는 교회에 대해서 여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출석을 거부하며 합법적인 예배가 아닌 특별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추방을 선포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런던 회중교회는 1593년 여름부터 대부분 암스테르담(Amsterdam)으로 피난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헨리 에인스워드(Henry Ainsworth, 1571-1623)를 교사로, 여전히 투옥중인 프란시스 존슨을 목사로 세웠다.

이들은 1596년 자신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조, 「런던-암스테르담 교회의 제2신앙고백서」(The Second Confession of London-Amsterdam Church)를 제정했다. 이 신조는 암스테르담교회의 회중들뿐만 아니라, 런던의 감옥에 있는 런던교회 회중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 신조에서도 브라운이나 베로우가 보여주는 특징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114] 즉 교회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자발적

---

112) 프랜시스 존슨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베로우와 그린우드의 작품 「분명한 논박」(Plaine Fefetation)을 발견하고 섭렵한 후였다.
김의환, p.317.

113) Michael R. Watts, 37-38.

114) Williston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인 공동체임을 밝히는 것, 회중들의 대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임을 강조함으로 사제들이 계층상 평신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통해 평신도의 주체적인 참여와 그에 따른 책임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115]

프란시스 존슨은 새롭게 계획된 식민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조건으로 1597년에 영국정부로부터 석방되었고 암스테르담 교회에 합류하여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1603년에 엘리자베스의 통치가 막을 내린 후,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은 제임스 1세가 그 뒤를 계승했다. 청교도들은 그 해 4월에 일천명 청원서(Millenary Petition)를 국왕에 제출했다.[116] 이 때 프랜시스 존슨과 헨리 에인스워드도 「분리파라고 불리우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변명 혹은 변호」(Apologie or Defence of such True Christians as are commonly called Brownists)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영국 교회와 회중교회의 차이점들」(Th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Congregationalism and The Church of England)이다. 여기에는 교회직제에 대한 성경의 제시, 개교회의 동일한 권한, 자발적 공동체로서의 보이는 교회의 정의, 사역자 선출의 조건과 회중들의 선출권한, 교회와 국가의 철저한 분리, 성경적 원리에 의한 교회의 운영, 오직 신자에게만 성례가 가

---

pp.49-74. 이 신조는 총 45항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1항에서 16항까지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17항부터 45항까지 교회론에 할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영국교회와의 교회론에 대한 갈등을 보여준다.

115) 변호용, 29-30.

116) Andre Maurois, p285. 그 내용은 모든 목사들이 흰 제복을 착용하는 여부는 목사 자신의 의사에 일임할 것, 세례 때 십자를 그린다든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결혼식에 반지를 교환하는 행위 등의 폐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능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모든 교회의 의식이나 예식의 금지와 같은 것이 언급되고 있다.[117] 특히 이 글에서는 각 개인의 양심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제의 간섭이나 교권의 간섭에서 자유롭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드러난다.

프란시스 존슨은 뒤에 나타나는 존 스미스, 헨리 베이콥 등과의 논쟁을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잡음이 있기는 하였으나[118] 영국 비국교도들의 네덜란드 망명 교회에서 효과적인 목회를 통하여 네덜란드에서의 비국교도 사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3. 재세례로 향한 극단주의자, 존 스미스(John Smyth)

존 스미스(John Smyth, 1570?-1612)는 캠브리지 대학의 그리스도 대학(Christ's College)에 입학한 1586년부터 1605년까지는 청교도주의 신앙에 있었다. 그는 학부과정에서 전술한 프란시스 존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스미스는 1594년 영국 국교회 사제로 안수 받았고 모교에서 4년간 가르쳤다.

1603년까지 출판된 시편22편 주석서인 「밝은 샛별」(The Bright Morning Starre)과 1605년에 출간된 「참된 기도의 모범」(A Paterne of True Prayer)은 전형적인 청교도 신학을 보여준다. 즉 신앙과 행습의 권위로서의 성경, 성자 그리스도, 원죄, 인간의 전적타락, 하나님의 예정, 성도의 견인, 이신칭의, 죄의 보상으로서의 구속, 전가된 의로 인한 구원을 인정

---

117) Willston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pp.77-80.

118) 존슨은 돈 많은 상인 에드워드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녀의 허영과 게으름 등을 비난하는 동생과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분열의 빌미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Watts, p.40.

하였고,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믿음과 회개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였다. 이 책들에서 분리주의는 분명하게 배격되었다.[119]

그러나 그는 차츰 분리주의적 원리들을 채택하고 게인스버러(Gainsborough)에 있는 회중교회의 목사가 되었다.[120] 여기에 인접 시골 지역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두 번째 회중교회가 스크루비(Scrooby)에서 브루스터(William Brewster, 1566?-1644)의 집에서 회합했다. 브래드포트(William Bradford)는 이 스크루비 모임의 젊은 회원이었다. 여기서 유식하고 온화한 성격의 존 로빈슨(John Robison, 1575?-1624)이 지도자로 활약했는데, 그도 분리주의를 유일한 논리적 대안으로 믿었다. 이곳에서 강한 박해가 일어나자 1608년으로 추정되는 해에 게인스버러의 회중교회 회원들은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하였다. 스크루비 회중교회는 로빈슨과 브루스터의 지도 아래 역시 같은 길을 택하여 네덜란드로 갔고 1609년에는 라이덴에 정착했다.

존 스미스는 독창적인 사람이었고 새로운 생각의 논리적인 결론을 추구하는 데는 거의 광신적이었다. 스미스는 닫힌 마음은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1608년 '이후 생각'에 그는 '흔히 시간은 전보다 더 낫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공언한다.' '나는 매일 발견한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그만둘 것이다.' 등의 글을 썼다.[121] 그는 확실히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1607년 그의 책 「가시적 교회에 대한 원리와 추론」(Principles and Inferences Concerning the Visible Church)에서 구약성경을 강조하는 칼뱅주의와 달리 신약성경만을 교회의 본질을 경정하는 기준

119) 김용국, "침례교 기원에 관한 역사적·신학적 이해: 존 스미스의 신학적 변천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2005년. p.96.
120) Ibid., p.97.
121) Watts, p.43.

으로 제시하기 시작한다.[122] 그가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완고해진 분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프란시스 존슨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공공 예배에서 성경의 사용과 연관하여 논쟁하였다. 청교도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읽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다. 스미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성경의 번역문을 읽는 것마저도 반대하였다. 그는 성경은 오직 그 원래 언어로 영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교회의 임원들에 의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그 자리에서 번역되는 것은 허용하였으나 번역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시초이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123] 이런 바탕에서 스미스를 따르는 이들은 존슨의 교회와 유대를 깨뜨렸고 그들 자신을 암스테르담의 두 번째 영국 교회의 분리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는 두 무리의 교회 통치에 관계된 것이었다. 암스텔담에 도착한 이래로 존슨의 교회에 고통을 준 불화는 그에게 강력하게 장로교주의의 미덕을 생각나게 하였다. 존슨의 교회의 교사인 헨리 에인즈워스(Henry Ainsworth)는 그리스도는 당회와 장로직을 주었고 모든 멤버는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게 기독교인의 자유를 위해서 인기 있는 정부를 찬성할 수 없었다는 것과 정부의 굴레를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었다.

스미스는 교회 민주주의에서 모든 분리주의자들의 개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다. 목사와 장로가 이끌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힘을 가졌더라도 결정적인 최후의 판단은 교회의 몸에 있다. 거기서 장로직은 제한된다. 장로가 없이 교회가 어떤 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라도 장로는 몸의 허가 없이 또는 몸에 반대하여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이 스미

122) 김용국, p.99.
123) Ibid., 100.

스의 논증의 힘을 보았고, 존슨의 교회에서 탈퇴한 이들도 있었다.[124]

스미스의 새로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아 세례 거부이다.[125] 세례의 문제는 분리주의자들에게 장애의 원인이 되어왔다. 그들은 영국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은 그 교회에 의한 세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헨리 베로우도 세례의 논리적인 결론에서는 움츠러들었다. 왜냐하면 재세례주의는 당시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거절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논리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영국 교회의 세례뿐 아니라 어떤 유아세례까지도 그는 거짓된 것으로 보고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가 예배 때에 성경을 봉독하는 것에 반대한 것처럼 성령의 역할에 대한 그의 고양된 개념에서 칭의가 표출되었다. 그는 세례란 단지 물로 씻음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즉 입술의 고백, 물로 씻음이다.' 라고 썼다. 죄에 대한 지식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입술로 회개를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유아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수 있는가라고 그는 물었다. 스미스는 그의 논쟁의 타당성을 그 모임에서 설득했고, 1609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세례 했다.[126] 그리고 토마스 헨리,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얼굴에 물을 부음으로써 세례를 주었다.[127]

그는 1609년 출판된 「짐승의 특성」(The Character of the Beast)라는 책을 출판하여 유아세례는 '가장 반기도교적인 불합리한 이단'이라고 하면서 국교회는 참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있는 혼합된 공동체이므로 적그리스도

---

124) Watts, p.44.

125) 김용국, pp.100-101. 1608년 후반 혹은 1609년 초반의 일이다.

126) Watts, pp.44-45.

127) 채드윅의 경우는 자기들을 받아들일 만한 순결한 교회가 없다는 근거로 자기가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가장 괴상한 탈선'이라고 표현하면서 분리주의자들이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Owen Chadwick, 「종교개혁사」 pp.214-215

적인 교회라고 공격하였다.[128] 그는 세례는 회심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기에 유기된 자를 참된 신자로부터 구분해주며 따라서 세례만이 참된 교회를 만드는 징표이고 유아들은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없으므로 침례 대상도 안 되고 교회회원의 숫자에 넣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나온 그의 "짧은 신앙고백서"에도 나타난다.[129]

스미스가 그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재세례를 준 행동은 맹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예를 들어 정열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스미스 때문에 분리주의자가 되어 암스테르담까지 그를 따라갔던 리차드 크립턴(Richard Clifton)과 같은 이는 스미스에게서 존슨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스미스가 스스로 세례 주었다면 누구나 스스로 세례 줄 수 있고,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이것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였다.[130] 이렇듯 재세례로 인해 스미스를 떠나가는 이들도 있었다.

스미스는 믿는 자들의 세례라는 면에서 메노나이트와 같았고, 더욱이 원죄와 예정과 영벌이라는 칼뱅 교리를 거절하는 점에서 일치했다. 스미스는 메노나이트들의 모임인 네덜란드 재세례파교회인 워터랜더(Waterlander)들과 접촉 한 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위임했다는 믿음을 고백했다. 즉 '원죄는 없다'고 말했다. 모든 죄가 실제적이고 자발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죄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부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의 선동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의 은총은 선택된 자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인간이 회계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

128) 김용국, p.101.
129) Ibid., pp.91-92.
130) Watt, p.45.

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성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다.

워터랜더와 연합을 추구하는 스미스의 행동은 자신의 교회를 나누어놓았다. 스미스가 기성 교회의 손에서 세례를 새롭게 추구하는 것은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 1550-1616?)에게는 사도적인 계승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스미스가 워터랜더와 손잡으려는 것은 스미스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였고, 헬위스와 7,8명의 사람들은 약 32명을 남겨두고 스미스 교회를 떠났다.[131] 그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남아있는 영국 사람의 신앙 선언문」(A Declaration of Faith of English People Remaining of Amsterdam in Holland)을 통해 스미스를 정죄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메노나이트와 다름을 밝혔다. 그들은 원죄에 대한 믿음을 확언했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예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헬위즈는 정부 당국자는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이 적법하게만 쓰여진다면 그 관할 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를 수호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행정장관으로서 선서를 하거나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메노나이트의 주장을 반박했다.[132]

그리고 1612년에 헬위스와 그의 그룹은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죽음의 처형으로부터 도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고서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런던 근교의 스피탈필드(Spitalfield)에 교회를 세웠다. 헬위스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스미스의 관점을 따랐고 또한 그것을 확장, 적용시켰다. 이 교회는 일반속죄설, 자유의지론, 은혜의 상실, 예지예정설 등 알마니안 신학을 따랐기에 역사가들은 그들을 최초의 영국 일반 침례교회(General

131) 김용국, pp.102-103.
132) 김의환, p.329.

Baptist)라고 부른다. 물론 이들은 회중정치를 주장하며 중생한 신자로 구성된 교회와 신자의 침례, 유아세례의 거부, 종교의 자유 등을 주장했다. 이 교회는 1616년 헬위스가 죽은 후에 머튼(John Murton, ?-1625)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었다.

당시 스미스는 오랜 동료들과 결별한 고통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겹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암스테르담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정신을 성숙하게 했고 관용의 덕을 갖게 했다. 1612년에 그는「그의 실수의 철회라고 불리는 것과 진리의 확증」(Called the Retractation of His Errours and the Confirmation of the Truth)이라는 주목할 만한 책을 썼다.[133]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논쟁을 종식시키기를 바랐다. 특히 자신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교회의 신실한 기독교인들과의 형제애를 의식이나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거절하지 않았다. 1612년 스미스는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스미스의 사상은 헬위스를 통하여 온건해진 형태로 바뀌어 영국 일반 침례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133) Watts, p.48.

Ⅳ. 중도 비국교도

17세기 초 영국의 비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류는 전장에서 살펴본 로버트 브라운의 전통을 따르는 엄격한 분리주의자들로 이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잃은 영국 국교회와 완전한 결별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하여 죽음이나 망명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리나 비국교도로서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영국 국교회와 교류를 유지하며 영향을 끼친 헨리 제이콥과 존 로빈슨과 같은 온건한 모습을 보여준 이들도 있었다. 그들을 중도 비국교도라 칭하고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1. 독립파교회를 시작한 헨리 제이콥 (Henry Jacob)

17세기 초, 비국교도의 교회개념에는 동의하나 영국교회와의 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독립파(Independents) 청교도로 불리며 헨리 제이콥(Henry Jacob, 1553-1624)에 의하여 시작되었다.[134] 헨리 제이콥은 1653년에 존 제이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1583년에 B.A. 과정을, 1586년에 M.A.를 받았다. 그는 영국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제이콥은 본래 분리주의자에 대해서 청교도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1596년 그는 감옥에 있는 프란시스 존슨을 방문해서 기존의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큰 무지와 잘못을 그에게 확신시키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문제를 놓고 몇 번의 서신 교환이 있었다. 1599년 이 서신들의 내용이 미들버그에서 「영국의 교회와 사역의 수호」(A Defence of the Churches

134) 원종천, p.158.

and Ministry of Englande)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이것은 영국 청교도들이 분리파에 동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 존슨은 이에 대해 1600년 「제이콥 선생의 영국교회의 사역의 수호에 대한 응답」(An Answer to Maister H. Iacob is Defence of the Churches and Ministry of England)을 출판했다.[135]

또한 제이콥은 영국 청교도 운동에 연루되었다. 그는 1599년과 1600년에 윈체스터 교구목사인 토미스 빌슨(Thomas Bisson)에게 몇 가지 신학적 질문으로 도전한다.[136] 그리고 그는 1603년 "일천명 청원서"(Millenary Petition)를 기록한 청교도 대표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 내용은 국왕에 대한 인사와 교회의 예식에 관한 청원, 목회자들에 관한 청원, 교회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청원, 교회의 질서를 위한 청원이 나타나는데, 그 중 특징적인 것은 첫째는 목회자의 목회지 정주 및 단일임지를 원하는 것과 둘째는 교회의 예배의식에서 로마교적 잔재를 없애달라는 청원이었다.[137] 이 청원을 다루기 위해 1604년 햄튼궁에서 회의(Hampton Court Conference)가 열렸으나 결과는 레이놀즈(Reynolds)의 건의로 성서개역을 허락한 것 이외는 아무런 변화 없이 끝났다.

제이콥은 1604년 7월에 「우리의 영국교회를 개혁할 필요를 입증하는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증언에서 유추된 이유들」(Reasons taken out of Gods Word and the best humane Testimonies proving a necessitie of reforming our Churches in England)을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1) 믿

---

135) Watts, pp.51-52.

136) Yarbrough, Slayden A. "Ecclesiastical development in theory and practice of John Robinson and Henry Jacob"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5 Fall 1978. p.186.

137) 심창섭·채천석편저, 「(원 자료 중심의) 근. 현대교회사」 pp.68-71. 20. 천명의 탄원 1603.

음과 규율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전통이 없어도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2) 영국 국교회의 사역과 예배 의식들은 개혁이 필요하다. 3) 그리스도 이후 200년 동안의 그리스도 교회들은 교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회중 중심의 교회였다. 4) 신약은 특별한 교회 정치 형태를 보여 준다. 5) 이 교회 정치의 형태는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어느 형태도 합법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138] 이는 그가 보편적이고 국가적이고 지역적이거나 혹은 교구주교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분리주의자들의 견해를 취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믿는 자들의 상호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기 위해 연합하고 언약하는 교회가 구성되고 모아져야 한다는 견해 또한 보인다.

이로 인해 제이콥은 런던의 감독에 의해 8개월간 투옥되었다가 1605년 4월에 이 책을 더 이상 배포하지 않고 영국교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제이콥의 관점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모인 교회가 영국의 교구 교회들과 교제를 끊을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었다. 영국에서 각 교회의 목사들은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진정하고 적절한 목사이다. 제이콥의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이의 타협책이었다. 그의 이런 독특한 관점은 그에 관한 여러 시각을 만들어 내었다. 회중교회의 19세기 역사가들은 그를 분리주의자로 보았고 혹자는 제이콥을 독자적인 청교도로 보았고 혹자는 비분리 회중주의자로 보았으며 혹자는 반(semi) 분리주의자라고 하였다. 또 온건한 분리주의자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자코바이트라는 용어

138) David Martyn Lloyd-Jones, 「청교도 신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pp.160-161

가 생기게 되었다.[139]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회중을 조직했던 제이콥은 일치주의를 시도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1605년 제이콥을 비롯한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교회정치를 허락해달라는 "세번째 겸허한 상소문"을 왕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140]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공적으로 어느 곳에 모일 수 있으며, 우리들 자체로 예배 집전과 교회정치를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즉 인간의 어떠한 전통에도 구애됨이 없이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몇 모임내의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제까지의 현 상태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허락할 것, 단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1) 먼저 치안 판사 앞에서 현재 이 나라의 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각하의 주권과 왕권을 선서한다. 2) 다음으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교회가 하는 것같이 현재 확립되어 있는 나머지 영국 국교회들과 형제의 교제를 유지한다. 3) 현재 규정되어 있는 대로 모든 방면의 세금과 의무들을 교회와 정부에 충실히 드린다. 4) 만일 이들 중 누군가 선한 질서와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어기고 교회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 잘못을 범하면, 그 때는 각하의 정부 관리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청원은 수락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성도들의 자발적 언약에 입각한 분리파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교회관이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이콥이 1604년-1605년경에 작성한 「기독 종교의 원칙과 기초」라고 이름붙인 교회 요리문답에서도 잘 나타난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로서 함께 살기로 언약하는 믿

139) Watts, pp.52-53.
140) D. Martyn Lloyd-Jones, p.165.

는 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그는 이 교회 구성에 대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시적, 목회적 교회는 특별한 회중이다. 이 회중은 신자들의 영적으로 완전한 조합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모든 수단들을 시행한다'라고 하였다.[141]

그러나 이 글에 대해 제임스 1세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당신네에 대해 너무 큰 관용을 베풀어 지금 당신들로 하여금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게 만들었다.'[142]

그래서 제이콥은 분리주의자들을 따라 네덜란드로 갔다.그는 십여 년을 그곳에서 보낸다. 그곳에서 제이콥은 분리주의자 존 로빈슨(John Robinson)을 만났다. 제이콥은 로빈슨의 분리주의 관점을 온건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의 분리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1611년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참되고 가시적이며 대리자적인 교회의 신적인 시작과 설립」(The Divine Beginning and Institution of Christ's True, Visible, and Ministeral church)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는 "교회란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영적 공동체를 만들고 대개 한 장소에 모이며, 이 모임(교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고, 교회정치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예식(구원의 방도, 즉 성례)을 자체 내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라고 밝힌다.[143]

1616년에 헨리 제이콥은 영국으로 돌아갔고 사우스웍(Southwark)에서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길에서 함께 걸을 것을 '언약'했다.

---

141) Yarbrough, p.187.
142) Yarbrough, p.187.
143) D Martyn Lloyd-Jones, p.168.

이것은 최초로 회중교회주의 교회(congregtional church)로 존속하였다. 이 교회에서 사용한 28개 항의 언약문은 분리주의자들과 로빈슨의 교회에서 사용한 것과 거의 같았다.[144] 제이콥은 분리주의자들처럼 여자를 제외하고는 교인들이 예언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성직자를 부양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무적인 십일조 부가를 거부했다. 제이콥의 교회는 분리주의자들을 공통적인 믿음을 가진 형제로 인정했고,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때 발간된 제이콥의 "여러 원고 모음"(A Collection of Sundry Matters)에서 기존 교회로부터 분리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그는 그 책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

> 그러므로 우리는 교구 교회에서 우리의 현재 지위를 떠나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따르는 목사를 모시는 자유회중에 가입해야 한다. … 우리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복종하도록 명령받았고 진정한 교회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 시당국을 포함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 날에 어떤 장관이나 왕도 우리를 위해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심판의 날에 장관들이 우리 영혼을 위해 대답할 수 없고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못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이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계명에 동의하고 복종해야

144) 1. 그리스도의 직분, 2. 완전한 성경, 3. 교회의 구분, 4. 그리스도의 참교회, 5. 대회와 회의들, 6. 보편적 또는 가톨릭적 교회 통치, 7. 한 지역을 당위로 형성된 독립교회, 8. 참된 통치적 자주권을 가진 가시적 교회, 9. 주교에 대해서, 10. 교역자를 세우는 일, 11. 영국 교구 사역자들이나 교구민들 사이의 교통에 대해, 12. 겸직 목회자들과 부재 성직자들에 관해, 13. 규율과 책망, 14. 목회자의 일상적인 권력과 권위, 15. 회중 속의 신성 모독적이고 추잡한 사람, 16. 인간적인 전통, 17. 사도의 유전, 18. 예언, 19. 교회 안에서 설교문을 읽기. 20. 그리스도의 지옥강화, 21. 기도문, 22. 거룩한 날, 23. 결혼관 장례, 산후결례, 24. 교회 사역자들이 국가의 행정관이 되는 것, 25. 믿음 있는 자들의 예물과 헌물, 26. 십일조와 사례비, 27. 정부의 의무, 28. 그리스도 앞에서의 복종. D Martyn Lloyd-Jones, 170-176.

한다.[145]

제이콥의 이러한 중도주의는 양쪽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경멸을 받았다. 런던 분리주의자들은 제이콥의 추종자들을 자신들의 교구교회에 참석하는 우상숭배자로 비난했다. 안팎에서 그의 교회에 고통이 찾아왔고 1620년대 초기에 제이콥은 버지니아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1624년에 죽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회중교회와 영국 국교회를 화해시키려는 제이콥의 시도는 점점 더 많은 청교도들 가운데 호의를 얻게 되었다.

한편 1630년대에 제이콥의 교회에서 갈라진 일부 그룹은 신자의 세례가 성경적 규범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제이콥의 회중교회와 분리된 이들은 영국에서 제2의 침례교 노선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특수 침례교회 혹은 칼빈주의적 침례교(Particular of Calvinistic Baptists)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피택자에게 국한된 특수 혹은 제한 속죄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1641년 그들은 침례(immersion)를 세례의 정당한 형태로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이것이 영국의 모든 침례교회로 퍼져나갔다[146]

2. 필그림 파더의 목회자 존 로빈슨(John Robinson)

"필그림 파더(Pilgrim Father)의 목회자"[147]로 알려진 존 로빈슨(John Robinson, 1575?-1625)은 1592년에 캠브리지대학의 Corpus Christi College에 입학을 했고 그곳에서 1598년에 연구원이 되었다. 1600년경에 노리치에서 그는 영국 국교도의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청교도 운동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예배에서 국교회의 예식과 중

145) Yarbrough, p.189.
146) Williston Walker,「기독교회사」p.612.
147) Lloyd-Jones, David Martyn, p.161.

백의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성직을 정직 당했고 따라서 개인적인 종교 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리치를 떠났고 영국 분리주의를 향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604년에서 1607년 사이에 존 스미스가 조직했던 스크루비에 있는 비국교도의 모임에 참석했고 곧 스크루비 회중교회의 목사 리차드 크립턴(Richard Clyfton)을 돕는 부교역자로 선출되었다. 1607년 혹은 1608년에 이 스크루비 교회는 영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 레이든(Leyden)으로 피하게 된다. 그곳에서 로빈슨은 담임 목사가 되고 윌리엄 브루스터(William Brewster)가 치리장로로 임명된다.[148]

로빈슨의 레이든 교회에는 많은 영국 추방자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곧 원래 그룹보다 영국 추방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고 교인 수가 300에 달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내적인 갈등이나 분리로 찢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종자들을 일깨운 로빈슨의 온건함과 사랑 때문이었다.[149]

레이든 교회 초창기에 교회에서 로빈슨의 위치는 다른 영국 분리주의자들이 주창한 엄격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1610년에 「분리의 정당성」(A Justification of Separation)에서 그는 영국의 기존 교회를 성경의 이상적인 교회와 비교했다. 이 책의 결론은 정부와 영국 국교회의 성찬으로부터의 분리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로빈슨은 영국교회의 구성은 사도적이지 않고 거짓되며 그들의 모임은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150] 이렇게 그의 네덜란드에서 초창기 사역은 로버트 브라운의 전통에 따르는 엄격한 분리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로빈슨은 그곳에서 제이콥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 로빈슨이 제이콥과

148) Yarbrough, pp.184-185.
149) Watts, pp.50-51.
150) Yarbrough, pp.184-185.

의 만남을 통해 분리주의를 포기했다는 것이 사실은 아니더라도[151] 그 후 이후의 글들은 로빈슨이 제이콥의 온건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1614년에 발간된 그의 책 「성찬에 관하여」(Of Religious Communion)에서 그는 종교행위를 개인적인 것과, 교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기도, 감사, 찬양, 믿음의 공언, 고백,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어떤 교회적인 영향이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 행위는 적절한 교회 질서를 근거로 하고 이는 교인들 간의 교제와 선거, 교회 임직자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책에서 로빈슨은 영국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과 개인적인 교제를 찬성했다. 그러나 공적인 교제는 영국 교회의 거짓된 교회 질서 때문에 거절했다.[152]

이후 로빈슨은 1619년에 라틴어로 된 「정당하고 필요한 변론」(A Just and Necessary Apology)을 출판한다. 이것은 1625년에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영국 회중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레이든 추방자들의 위치를 논했다.[153]

1624년에 「런던에 있는 회중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빈슨은 온건한 태도를 포현한다. 이 책에서 그는 제이콥의 회중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엄격한 분리주의자와 결별하게 되었다.[154]

---

151) Watts, 54-55. Watts는 챔플린 버리지(Champlin Burrage)와 홀튼 데이비스(Horton Davies)가 이 만남을 통해 로빈슨이 분리주의를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p.612에는 로빈슨이 거의 설복당할 뻔했다는 표현을 쓴다. 한편, D. Martyn Lloyd-Jones,는 「청교도 신앙」 p.166에서 로빈슨이 분리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주장한다.

152) Yarbrough, pp.190-191.

153) Ibid., p.191.

154) Ibid.

그는 이 시기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합법성에 관해서」(On the Lawfulness of Hearing ministers)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영국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과 국교회의 계급주의에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국교회 설교자의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일 수 있으나 국교회 설교자의 목회적 임무는 하나님의 규정한 성경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쨌든 자신의 믿음은 영국 국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하면서 기꺼이 국교의 교인들과 교제 할 수 있으나 국교의 거짓된 교회 정치와 교회 질서와 법령에는 참여하기 싫다고 말함으로서 국교회로부터 분리를 재확인했다. 그는 그의 양심상 각 지교회와 회중에 대한 그의 믿음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155]

제이콥과 영향을 주고받은 로빈슨의 라이덴 회중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보다 활동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파송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 때 집사 존 카버(John Carver)와 로버트 쿠쉬맨(Robert Cushman)을 신세계에서 정착의 조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영국에 있는 버지니아 상사(Virginia Company)로 보낸다. 이들은 "7개 항목"(The Seven Articles)이라 알려진 문서를 가지고 갔다. 이 로빈슨과 브루스터의 서명이 담긴 이 문서는 온건한 분리주의자의 태도를 보여준다.[156]

그들은 장로 윌리엄 브루스터의 지도 아래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기로 결정했다. 1620년 12월 21일, 이렇게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들은 플리머스(Plymouth) 식민지의 기초를 놓았다. 이 때 로빈슨은 새 세계로 떠나는 이들에게 영국의 경건한 부류의 함께하는 노력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157] 이 순례자들은 즉시 회중교회

155) Ibid., p.192.
156) Yarbrough, pp.192-195.
157) Watts, p.55.

의 원리 위에서 교회를 형성하였고 시민정부를 건립했으며 그 속에서 매년 한 사람을 선출하여 대통령으로 삼았으며 일곱 명의 요원을 그 속에 두었다.[158] 이렇게 회중교회주의가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 처음 이식되었다. 비분리주의적 흐름과 분리주의적 흐름이 신세계에 함께 유입되었던 것이다.

158) James Heron, p.202.

Ⅴ. 비국교도의 교회론

비국교도들의 신학에서 교회론을 살펴보는 이유는 비국교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개혁운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159] 본 장에서는 영국 국교회는 어떤 정치 체계를 갖추었고, 그에 반대한 비국도들 교회론 부분을 각각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국교도들의 교회론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고 이 입장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까지 다루도록 하겠다.

1. 영국 국교회의 체계

영국 교회의 감독제도는 왕이 한 손으로는 나라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국가교회의 체제 하에서 왕이 그 밑에 대주교(Archbishop)들을 두고 대주교 밑에는 감독(Bishop)을 두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이는 감독들에게 교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부여했고 감독은 그 밑에 성직자들을 임명하였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반 성직자까지 완전한 계급주의 교회 정치체제가 구축된 것이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일반 성직자들은 감독들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통제와 간섭 때문에 소신껏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 성도들에 대한 치리권도 일반 성직자가 아닌 감독들이 가지고 있었고, 치리는 개교회의 성직자들의 권한 위에 있는 교회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160]

159) 원종천, p.132.
160) Ibid., pp.132-133.

2. 각 비국교도인들의 교회론

이에 대하여 영국 국교회 내에서 반발의 기운이 싹텄다. 제네바에서 칼뱅의 영향을 받은 카트라이트는 성경을 강조하면서 회중에 의해 선출된 장로들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음을 강조하여 감독 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회중에 의한 목사 선택, 대주교좌나 부감독좌의 폐지 그리고 성직을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환원할 것 등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영국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윌콕스(Thomas Wilcox)와 존 필드(John Field)는 "의회에 드리는 권면"(An Admonition to Parliament)이라는 글을 통해 교회에 대해 세가지 정의를 보여주었다.[161]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이고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는 곳이며 교회와 사회는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에 더해 영국 교회가 도저히 개혁될 수 없으므로 영국 국교회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것이 '비국교도들'이다.

그 첫 영향력 있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 로버트 브라운과 해리슨이 노르위치에 세운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언약'에 서약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언약의 내용에는 네 가지가 나타난다.[162] 첫째는 이들이 한 무리로 연합하여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의 율법과 통치를 지키고,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무질서와 악을 금하겠다는 것이며 이 조항에 '스스로' 동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윌콕스와 필드의 "의회에 드리는 권면"에 나타난 세 원칙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둘째는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도우며 순종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 내에서 질서 있게 기도와 권면, 위로가 이루어지도록

161) 그들은 이 글을 통해 교회개혁을 해보려고 하였다. 원종천, p. 134.
162) 원종천, pp.139-142.

하는 예배 모범이다. 둘째와 셋째는 성공회 감독제도의 계급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타율적 교회가 아닌 스스로 영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는 자율적인 교회를 보여준다. 넷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도록 노력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질서 있고 거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서약한다. 브라운의 이러한 언약 개념은 비국교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언약'의 출발점이 되었다. 브라운의 글은 교회란 참 믿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와야 하는 것이며 이 무리는 일치된 동의를 통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비국교도의 교회관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에서 나타나는 자발성과 조건성이다.

그의 이 언약의 조건성에 대한 강조는「무엇에도 지체되지 않는 개혁에 대한 논문」(A Treatise of Reformation without tarrying for anie)에서 잘 드러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유대에 기초를 둔 것과 같이 교회 멤버와 그들의 목사, 장로들 사이의 적절한 관계도 상호간의 언약에 기초해야 한다.[163] 그는 영국 국교회의 부패원인은 이런 적절한 언약 관계가 없이 믿음이 없고 부패한 자를 신자로 그냥 인정한 데 있다고 생각했다.[164] 참된 교회는 하나님과의 체험을 가진 신자들이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구성한 개교회라는 것이다.[165]

또한 그는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하여 그의 '종교 개혁론'에서 교회와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으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

163) Watts, p.30.
164) 오덕교,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건국이념 비교"「신복윤박사 은퇴기념 논문집」(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2) p.572
165) 임희완,「영국혁명의 水平派운동」p.29.

면서 영국교회와 같은 국가교회도 부정하고 장로파가 주장하는 국민교회도 부정하였다. 오직 국가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관용(toleration)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런 브라운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지상적인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 혹은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기초한 교회 계약만이 교회설립의 근거이다.[166] 브라운은 언약사상과 더불어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계약은 각 지교회별로 행해지는 것이기에 각 지교회는 자치적이며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은 각 지교회 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그러므로 어떤 지교회도 다른 지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각 지교회 끼리는 형제적 협력을 다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167] 이런 입장은 이후 비국교도들의 교회관에 있어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헨리 베로우는 언약 사상에서 특히 치리 부분을 강경하게 나타났다. 그는 한쪽으로는 재세례파가 주장하는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의 존재를 비판하면서도, 분별없이 교인들을 받아들이는 영국 교회를 참 교회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168] 그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과 성례만을 교회의 징표로 보고, '치리'를 제외시킨 것이 오류라고 하며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이 당시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때가 카톨릭에서 금방 나온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169] 칼뱅마저 비판하는 그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영국교회는 참 교회가

166) 김광채,「근세 현대 교회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112.
167) 김광채, p.112.
168) 원종천, p.149.
169) Ibid, p.150.

아니며 따라서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영국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갖추지 않았으며 교회의 치리도 없기에 근본적으로 교회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가 그린우드와 함께 작성한 「런던 신앙고백서」(The London Confession)는 교회의 모든 정치에 있어 평신도의 참여를 강조하는 '회중교회정치'(Congregationalism)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170]

이후의 비국교도 프랜시스 존슨의 교회 언약에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먼저 명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할 것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함께 연합하며 서로를 돌보고, 예수께서 교회를 돌보라고 명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때에 순복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여기에 이 언약에 서약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 교회에 한번 멤버가 된 사람은 이 교회처럼 치리제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 이외에는 어떤 다른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171]

프랜시스 존슨에게서 과격한 주장을 함으로 갈라져 나간 존 스미스는 교회에 있어서 이런 언약과 자발성의 모형을 세례에서 찾았다. 그는 세례는 회심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기에 유기된 자를 참된 신자로부터 구분해주며 따라서 세례만이 참된 교회를 만드는 징표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들은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없으므로 세례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스스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까지 나아가게 하였다.

헨리 제이콥은 성도들의 자발적 언약에 입각하는 분리파들의 교회관과

---

170) Willistion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p.33.

171) 원종천, pp.152-153.

매우 흡사하게 교회를 이해하였다. 그가 1604-1605년경에 작성한 교회 요리문답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로서 함께 살기로 언약하는 믿는 자들의 자발적 동의에"의하여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1610년에 더 상세하게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영적 공동체를 만들고 대개 한 장소에 모이며, 이 모임(교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고, 교회정치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예식(구원의 방도, 즉 성례)을 자체 내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172] 제이콥의 교회 개념도 역시 언약에 입각한 교회의 자발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믿는 자들의 자발적 언약에 의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 정치와 운영도 전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나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국교회로부터 분리를 원하지 않는 점에서 위의 분리주의 비국교도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이 제이콥의 영향을 받은 로빈슨은 처음의 엄격한 분리주의자의 모습에서 중도적 모습으로 완화되었다. 로빈슨도 분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교구 회중교회의 타당성을 거부하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발성과 언약을 강조했으나 그는 국교회 회중교회 교인과 국교회 목회자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그는 국교회에 속한 기독교인과 국교회 교회 법령과의 사이에 차별을 두었기 때문이다.[173] 그는 사우스웍에 있는 제이콥의 회중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도 국교회에서 출발점을 가졌으니 국교

172) Ibid., p.158.

173) Yarbrough, Slayden A. "Ecclesiastical development in theory and practice of John Robinson and Henry Jacob" p.197.

회에 소속된 회중에 대하여 근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174]

3. 비국교도 교회론의 특징

비국교도 교회론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영국국교회는 그들이 믿음의 권위에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으나 교회생활과 예배분야에는 전통의 체계가 성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비국교도들은 교회 생활과 예배 분야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완전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교회 언약의 앞부분에는 거의가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부분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예배와 교회정치와 국가와의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원했고 그대로 따랐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개인의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다.[175] 그들은 경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구속적 사랑에 대한 깊은 개인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중생이나 회심이라는 단어는 예배의식이나 설교에서 쓰는 단순한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자신들에 의해 체험된 실재들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은 설교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도록 영향을 끼쳤다.[176]

세 번째 특징은 자발성과 조건성의 언약이다. 비국교도들의 교회가 설립될 때는 언약이 뒤따랐다. 그들은 이 언약을 스스로 동의하며, 이 언약에 의해서 교회 구성원들(일반 교회 멤버, 목사, 장로)간의 적절한 관계가 구성된다. 그들은 이런 자발성과 조건성의 언약이 없이 믿음이 없는 자를

174) Ibid., 192.
175) 홍치모,「近世 英國의 宗敎와 政治」(서울: 성광문화사, 1980) p.63-64.
176) Ibid., p.65.

신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패된다고 생각하였다.[177] 이런 언약 사상에서 베로우와 같은 이는 '치리'부분을 강하게 부각시켰고, 존 스미스는 자발성과 언약의 표징을 세례로 생각하고 이를 극단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특징은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가 관계를 맺으면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관용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국가 주도하의 영국 국교회에 반발해서 나온 비국교도들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나 존 스미스에게 영향을 끼친 메노파(재세례파)는 그리스도인은 정부 당국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하였으나, 비국교도들은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서는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78]

다섯 번째 특징은 각 교회를 평등한 관계로 두는 것이다. 그들은 각 지교회는 다른 지교회와 형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계약은 각 지교회별로 행해지는 것이기에 각 지교회의 임직자들의 선출과 그들의 치리는 각 지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존 로빈슨과 같은 이는 국교회 안에 있는 헨리 제이콥의 교회를 인정함으로서 많은 질타를 받는 위험도 감수하였다. 이는 개교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177) 오덕교,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건국이념 비교", p.572

178) Estep, William R., 「재침례교도의 역사」 정수영 역, (서울: 요단, 1985) p.329.

Ⅵ. 결론

당시 영국의 비국교도들은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거주지를 옮기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면서도 국교회를 왜 거부하였는가? 여러 학자들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좌절,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세력들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술한 여러 과정들은 그들이 종교적인 열정에 의하여 이끌렸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당시의 기존 종교 세력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들이 밝히는 대로[179] 당시 카톨릭과 국교도 성직자들은 아주 사치했거나,[180]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대표로 1551년 존 후퍼가 사역했던 글루스터(Gloucester)의 상황을 보면,[181] 당시 그 교구에 총 311명의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이중 168명이 십계명을 암송치 못했고, 168명 중 31명은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또한 40명은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고 저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또한 도덕적으로는 술주정뱅이, 생활의 혼잡함, 카드놀이에 빠진 이들도 많았다.[182] 한편 1578년 콘월(Cornwall)에서는 140명의 성직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설교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예배서를

179) 앙드레 모로아,「영국사」신용석역, (서울:홍성사, 1981) pp.224-5.

180) 토마스 울지 추기경은 400여명의 종복, 16명의 자가 목사, 자가용 합창대를 거느렸다.

181) 당시 후퍼가 그의 교구 관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물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계명은 몇 개인가? 2) 계명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3) 계명들을 암송해 보라. 4)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은 무엇인가? 5) 그것들을 암송해 보라. 6) 성경에서 그것들을 증명해보라. 7)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라. 8) 그것이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9) 어디에서 주기도문을 찾을 수 있는가? 였다. 이 교구에 소속된 311명 중에서 50명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고, 10명은 주기도문을 몰랐으며 8명은 위의 질문 중 하나도 답변하지 못했다.

182) 서요한, "청교도 운동의 기원과 발전(1)"「역사신학 논총 3.」(서울:이레서원, 2001) pp.379-380

읽을 수 없는 사람이 거의 네 명에 한 명 꼴이었다.[183]

이런 상황에서 영국 국교회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기는 했으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개혁을 시도하다보니, 카톨릭적 요소와 관료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모습은 은혜에 이끌리는 자발적인 모습보다는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한 카톨릭 교회의 현실과 이를 개혁해 나온 영국 국교회가 그들의 종교적 열정을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보자는 절실함으로 '비국교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스스로 자치하며 치리하고 그리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영국 국교회를 부정하였다. 많은 이들은 국교회와 결별하였으나 자코바이트 같은 그룹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믿음의 순수성을 기존 교회에 연결시켜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 때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미스가 언급한 당시의 비국교도 교회의 주일예배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84] 그들의 아침 예배는 기도와 성경을 한, 두 장 읽음으로서 8시에 시작했다. 이것은 예배 행위라기보다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스미스는 주장했다. 스미스의 예배 개념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언을 통한 성령의 자발적인 부어짐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옆에 제쳐두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으로부터 어떤 텍스트를 묵상하기 위해서 일어섰고 그리고 한 시간이나 45분정도 성경본문을 사용하여 예언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자가 일어서서 이미 말한 본문으로 같은 시간동안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 후에 세 번째, 네

183) 앙드레 모로아, p.221. 앙드레 모로아는 '당시 영국이 반종교적이 아니라 반성직자적이었다.'라고까지 한다.

184) Watts, pp.74-75.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 예배는 기도와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을 하고 12시에 끝났다. 그리고 오후에는 똑같은 예배가 두시부터 대,여섯시까지 있었다.

이렇게 국교회와 카톨릭 교회에서 드릴 수 없었던 자발적이고 감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대륙으로부터 전파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인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사상[185]을 체험적으로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종교는 공공적인 의식으로 외부에서 강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의 일이라는 신념을 선포하게 되었다. 더하여 그들이 받게 된 핍박의 삶을 통해 믿음이 칼 끝에서 조정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으나 성경에 근거하여 모인 초기 "예언들"(prophesyings) 모임을 통해 그들은 자신 안에서 신비한 세계와 교합점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이 대륙 신학의 확증을 받아서 개인에서 시작하여 교회로 확장해 한 것이다. 후에 이 "예언들"은 "가르치는 직무"(lectureship)에 의해 발전되었고 설교가 없는 교구에서 대신 설교를 한 청교도 경향이 강한 오후 설교자들(afternoon preachers)에서 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비국교도 운동은 당시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미국에 필그림 파더스가 도착하게 됨으로 미국 신천지의 역사가 개척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여러 청교도 학자들이 배출되고 스미스의 영향 아래 침례교가 출발점을 가지며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또한 비국교도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된다.

비국교도들은 그들 안에 신학적으로 불안한 사람도 있었고, 교회의 모범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대

185) Bernard Cottret, 「루터 칼뱅 웨슬리」, 박건택 역, (서울: 솔로몬, 2004) pp.17-18.

의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훈련이나 조직을 이용한 교인 수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하여 좋은 도전을 준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조직과 행정으로만 유지가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의 폭발적인 힘을 잃기가 쉽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고 도서

영문원서

Dikens, A. G. 「The English Reformation」 (London: B.T. Batsford Ltd., and New Your: Schoken Books, 1964)

Elton, G.R. 「The Tudor Revolution in Government」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79.

Hill, C., 「Puritanism and Revolution」 New Your: Schocken Books, 1968.

Hughes, P., 「The Reformation in England」 New Your: The Macmillan Co., 1951.

Moorman, John R.H., 「A History of the Church in England」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80.

Neill, Stephen, 「Anglicanism」 London: Penguin Books, 1965.

Parker, T.M., 「The English Reformation to 1558」 Oxford Univ Press, 1966.

Patterson, M.W. 「A History of the Church of England」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20)

Powicke, M., 「The Reformation in England」 Oxford: The Univ Press, 1967.

Simpson, Alan, 「Puritanism in Old and New Engla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Walker, Williston,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3.

Watts, Michael R., 「The Dissen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White, B.R., 「The English Seperatist Trad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Yarbrough, Slayden A. "Ecclesiastical development in theory and practice of John Robinson and Henry Jacob"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5 Fall 1978.

Yarbrough, Slayden A. "The English Seperativs influence on the Baptist Tradition of Church-state Issues", 「Baptist History & Heritage」, 20. 1985

국내 출판 번역서

Abba, Raymond,「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Bainton, Roland Herbert,「16세기 종교개혁」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2)

Brown, Harold O.J.,「교회사 안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라은성역, (서울: 그리심, 2001)

Burrell, Sidney Alexander,「서양근대사에서 종교의 역할」임희완 역, (서울: 민음사, 1990)

Carden, Allen,「청교도정신」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Chadwick, Owen,「종교개혁사」서요한 역,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9)

Collinson, Patrick,「종교개혁」이종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5)

Cottret, Bernard,「루터 칼뱅 웨슬리」, 박건택 역, (서울: 솔로몬, 2004)

Dargan Edwin C.,「설교의 역사(Ⅱ)」김남준 역, (서울: 솔로몬, 1992)

Dargan Edwin C.,「설교의 역사(Ⅲ)」김남준 역, (서울: 솔로몬, 1994)

Estep, William R.,「르네상스와 종교개혁」라은성 역, (서울: 그리심, 2002)

Estep, William R.,「재침례교도의 역사」정수영 역, (서울: 요단, 1985)

Gonzalez, Justo L.,「중세교회사」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Henderson, G. D.,「스코틀랜드 교회사」홍치모·이은선 역,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1)

Heron, James,「청교도 역사」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Jones, Tudur,「기독교개혁사」김재영 역, (서울: 나침판사, 1990)

Latourette, Kenneth Scott,「기독교사 (中)」윤두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Lindsay, Thomas M.,「종교개혁사」이형기·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Lloyd-Jones, David Martyn,「청교도 신앙」(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Maurois, Andre,「영국사」신용석 역, (서울: 홍성사, 1981)

McGrath, Alister E.,「종교개혁사상입문」박종숙 역 (서울: 성광문화서, 1992)

Moorman, John R. H.,「잉글랜드 교회사 (상)」김진만 역, (서울: 성공회대학교출판부, 2003)

Morgan, Edmund S.,「Visible Saints」(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Morgan, Kenneth O. ,「옥스퍼드 영국사」, 영국사학회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Reid, Stanfor W.,「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이훈영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Ryken, Leland,「청교도-이 세상의 성자들」 김성웅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Schaff, Phillp,「스위스 종교개혁」 박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4)

Scott, William A.「개신교신학사상사」 김쾌상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Spitz, Lewis W.,「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Stauffer, Richard,「종교개혁」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Stoeffler, Ernest F.,「경건주의 초기역사」 송인설·이훈영 역, (서울: 솔로몬, 1993)

Stone, Lowrence,「영국혁명의 제원인」 홍한유 역, (서울: 법문사, 1982)

Walker, Williston,「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2)

Warren, Rick,「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회,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Woodbridge, John,「인물로 본 기독교회사 (상)」 박용규 역, (서울: 횃불, 1993)

Woodbridge, John,「인물로 본 기독교회사 (하)」 박용규 역, (서울: 횃불, 1993)

Woodward, E.,「영국사개론」 홍치모·임희완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8)

국내출판서

김광채,「근세 현대 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김기련,「종교개혁사」 (대전: 목원대학교출판부, 2004)

김의환,「기독교회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8)

김재성,「개혁신학의 정수」 (서울: 이레서원, 2003)

김현수,「영국사」 (서울: 대한교과서, 1999)

김홍기,「종교개혁사」 (서울: 지와 사랑, 2004)

나종일,「영국근대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박건택,「개신교역사와 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박건택,「칼뱅의 자유론」 (서울: 솔로몬, 2003)

박용규,「한국교회를 깨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박지향,「영국사-보수와 개혁의 드라마」(서울: 까치글방, 1997)
박지향,「영국사」(서울: 까치, 1997)
심창섭,「기독교 교회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오덕교,「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원종천,「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동섭,「영국의 종교개혁」서울: 수서원, 1990
이상규,「교회개혁과 부흥운동」(서울: SFC출판부, 2004)
이상규,「교회개혁사」(서울: 성광문화사, 1997)
임희완,「루터, 칼빈, 웨슬리 다시읽기」(서울: 그리심, 2006)
임희완,「영국혁명과 종교적 급진 사상」(서울: 새누리, 1993)
임희완,「영국혁명의 水平派운동」(서울: 민음사, 1988)
임희완,「청교도 삶·운동·사상」(서울: 아가페, 1999)
정준기,「청교도 인물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차하순,「새로 쓴 서양사 총론 1」(서울: 탐구당, 2000)
홍치모,「近世 英國의 宗敎와 政治」(서울: 성광문화사, 1980)
홍치모,「急進宗敎改革史論」(서울: 느티나무, 1993)
홍치모,「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홍치모,「종교개혁사」(서울: 성광문화사, 1996)
홍치모,「종교개혁의 세계」(서울: 아가페문화사, 2003)　　p.241 Advertisment
홍치모, 북구 르네상스와 중교개혁 성광문화사
황봉환,「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박건택편역,「종교개혁사상선집」(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0)
박건택편역,「칼뱅작품선집Ⅴ」(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심창섭·채천석편저,「(원 자료 중심의) 근. 현대교회사」(서울: 솔로몬, 1999)
심창섭,「기독교교회사」(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심창섭 ... [등]저「기독교의 이단들」(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7)
역사신학 13. (서울: 학술정보자료사, 2004)

교회사 대사전. (서울: 기독지혜사, 1994)

논문

Simpson, Allan, "청교도 사상의 기원", 홍치모역,「신학지남」1982년 196호.

심창섭,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원은 무엇인가(1)" 「신학지남」1997년 251호.

홍치모, "청교도란 누구인가",「신학지남」2001년 267호.

서요한, "청교도 운동의 기원과 발전(1)",「역사신학 논총 3.」(서울:이레서원, 2001)

오덕교,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건국이념 비교",「신복윤박사 은퇴기념 논문집」(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2)

김용국, "침례교 기원에 관한 역사적·신학적 이해: 존 스미스의 신학적 변천을 중심으로"「복음과 실천」2005년.

학위논문

김명수, "존 위클리프의 성경적 신학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 2004)

김준배, "英國의 宗敎改革과 튜도王朝의 改革政策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1)

김준배, "영국의 종교개혁과 튜도왕조의 개혁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1)

변호용, "청교도신조를 통하여 본 초기 회중교회주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0)

서혜정, "폴 리쾨르의 역사관 고찰"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2)

오찬경, "영국의 종교개혁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0)

윤종훈, "John Owen의 Mortification에 관한 고찰" (총신대학교 대학원, 1999)

이돈하, "르네상스 휴머니즘: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원"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3)

이승재, "청교도 교회론에 관한 연구: 16,17세기 영국 청교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4)

이중욱, "英國 國敎會 成立에 관한 一考察"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임춘배, "영국 분리주의 운동이 침례교 교회관 형성에 미친 영향" (고신대학 신

학대학원, 1993)
조용선, “17세기 뉴 잉글랜드 청교도의 중심 사상과 삶” (아세아연합신학대 대학원, 1997)
최영재, “16,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계약사상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2)
한승훈, “청교도 운동과 신앙이 침례교 신앙에 미친 영향” (침례신학대 신학대학원, 1998)

Web pages

English Dissenters : http://www.exlibris.org/nonconform/engdis/index.html